

“2020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대전 무형유산 학술세미나”

# 대전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실태와 발전방안



**2020**  
**11.19.**  
 (목요일) 13:30~

대전 전통나래관 다목적강당(5층)

주최  국립무형유산원  대전광역시

주관 대전문화재단  기호문화연구소



## 진행 순서



|             |                                                                                                                                                                                |
|-------------|--------------------------------------------------------------------------------------------------------------------------------------------------------------------------------|
| 13:30~13:40 | • 개회사·인사말                                                                                                                                                                      |
| [사회] 최혜진    |                                                                                                                                                                                |
| 13:40~14:10 | 01. “대전 무형유산 목록화” 과제수행 결과와 제언<br>[발표] 박종익(충남대학교)                                                                                                                               |
| 14:10~14:40 | 02. 대전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의미<br>- 동제를 중심으로<br>[발표] 조도현(한밭대학교)                                                                                                                         |
| 14:40~15:10 | 03. 대전의 ‘문화유적’을 통해본 무형유산의 존재양상과 성격<br>- 국사봉 유적 출토 土製馬를 중심으로<br>[발표] 강성복(충청민속문화연구소)                                                                                             |
| 휴 식         |                                                                                                                                                                                |
| 15:20~15:50 | 04. 대전시 무형문화재 예능종목의 전승현황과 문제점<br>[발표] 최혜진(목원대학교)                                                                                                                               |
| 15:50~16:20 | 05. 대전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활용방안<br>- 대전무형문화재 1호 웃다리농악 연희요소를 중심으로<br>[발표] 이희성(단국대학교)                                                                                                     |
| 휴 식         |                                                                                                                                                                                |
| 16:30~17:30 | <div> <div> <b>종합토론</b> </div> <div>           김효경(한남대학교)      윤동환(무형문화재연구원)<br/>           이명진(국립무형유산원)      서유석(경상대학교)<br/>           유병덕(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div> </div> |
| 17:30       | • 폐회                                                                                                                                                                           |







|                                      |    |
|--------------------------------------|----|
| 01. ‘대전 무형유산 목록화’ 과제수행과 제언 .....     | 3  |
| • 박종익(충남대학교)                         |    |
| 02. 대전 무형유산의 전승과 의미                  |    |
| - 동제를 중심으로 .....                     | 23 |
| • 조도현(한밭대학교)                         |    |
| 03. 대전의 ‘문화유적’을 통해본 무형유산의 존재양상과 성격   |    |
| - 국사봉 유적 출토 土製馬를 중심으로 .....          | 37 |
| • 강성복(충청민속문화연구소)                     |    |
| 04. 대전시 무형문화재 예능종목의 전승 현황과 문제점 ..... | 51 |
| • 최혜진(목원대학교)                         |    |
| 05. 대전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방안              |    |
| - 대전무형문화재 1 호 웃다리농악 연희요소를 중심으로 ..... | 75 |
| • 이희성(단국대학교)                         |    |



# 01

## ‘대전 무형유산 목록화’ 과제수행과 제언

박종익(충남대학교)



# ‘대전 무형유산 목록화’ 과제수행과 제언

박 종 익 (충남대학교)

## 1. 머리말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해온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비지정 무형유산의 기록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국의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무형유산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목록화작업<sup>1)</sup>을 통하여 안정적 전승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것이다.

본 사업은 2014년 진주시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진주시를 대상으로 시작된 조사연구 사업은 2015년 당진시, 2016년 남원시, 2017년 전주시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조사 연구는 해당분야 전문 연구자들이 담당하였다. 연구자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가 무형유산 종목을 발굴하고 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기록이 완료되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이 결과물을 간행물로 제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개 지역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연구자들 또한 자신이 머무는 지역사회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외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밝지 못한 편이다. 그런데 본 작업을 통하여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무형문화유산이 하나 둘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간행물로 제작된 도서가 전국의 도서관이나 학자들에게 보내지면서 지역에 숨어있던 문화유산이 하나 둘 드러나게 된 것이다.

기왕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유산은 비지정 무형문화재에 비해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아온 터였다. 행정관청이나 지역사회의 지원도 이들 지정 무형문화재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은 소외되었고 그 가치 또한 판단이 유보된 상태였다.

---

1) 목록화작업이란 해당 유산의 종목발굴과 그에 대한 개괄적인 기록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유산의 공식적인 명칭이나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 무형문화재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산의 범주, 유산의 전승지역, 유산 전승의 주체나 단체, 유산의 역사나 문화요소, 유산의 사회적 기능 등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소외된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은 해당 유산의 존재 확인은 물론이고 전승에 동력을 제공하는 일이 되었다. 나아가 해당 지역 관청이나 주민들이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였다.

“2020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대전 무형유산 목록화 사업”도 선행되어 온 사업과 같은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다. 대전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해당 소재의 전승에 동력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 글은 두 가지 관점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대전 무형유산 목록화”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작업의 방향과 종목 선정 등에 관한 일반론이다. 책임연구자로서 본 과제수행의 단계나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두 번째는 이 같은 과제수행의 결과로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한다. 여기에서의 제언은 향후 무형문화재 관리나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작성되었다.

## 2. 목록화 사업의 방향과 종목선정

### 1) 목록화 사업의 방향

대전 무형유산 목록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있다. 대전 지역에 산포해 있는 지정 무형문화유산과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해당 유산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전승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학술대회 개최와 해설책자를 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목록화 참여 연구자들이 그동안 조사연구해온 결과를 토대로, 대전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실태, 전승관계, 활용의 문제, 발전적 전승을 위한 제언 등을 주제로 발표 한다. 대전지역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체성이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해설책자는 그동안 조사해온 50여개 종목의 핵심적인 사항을 담으려 한다.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를 비롯하여 비지정 무형문화재까지를 두루 아울러 이 해설책자에 게재할 것이다. 아울러 해설책자는 일반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진자료나 삽화자료를 포함시켰다. 문장 또한 쉽고 평이하게 작성하도록 연구자들에게 권고 하였다.

### 2) 종목 선정

대전광역시의 “2020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대전 무형유산 목록화” 사업은 지정 종목과 비지정 종목을 함께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본래 비지정 종목의 발굴 기록에 비중

을 둔 사업이었으나 금년 들어와 본 사업에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무형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록 내용도 보다 평이하고 쉬운 문장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유산의 종목은 지정 종목을 전부 아우르고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비지정 종목을 발굴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지정 무형문화재 24개 종목, 비지정 무형문화재 30개 종목을 목록화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를 도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표-1〉 지정 무형문화재 종목

| 구분                         | 연번 | 목 록           | 종 목               | 분 야          |
|----------------------------|----|---------------|-------------------|--------------|
| 지<br>정<br>무<br>형<br>유<br>산 | 1  | 대전무형문화재 제1호   | 웃다리농악             | 예능           |
|                            | 2  | 대전무형문화재 제2호   | 미친굿, 앓은굿(2)<br>설경 | 기/예능<br>기/예능 |
|                            | 3  | 대전무형문화재 제4호   | 유천동산신제            | 전통의례         |
|                            | 4  | 대전무형문화재 제5호   | 장동산디마을탐제          | 전통의례         |
|                            | 5  | 대전무형문화재 제6호   | 불상조각장             | 기능           |
|                            | 6  | 대전무형문화재 제7호   | 소목장               | 기능           |
|                            | 7  | 대전무형문화재 제8호   | 매사냥               | 예능           |
|                            | 8  | 대전무형문화재 제9-가호 | 송순주               | 기능           |
|                            | 9  | 대전무형문화재 제9-나호 | 국화주               | 기능           |
|                            | 10 | 대전무형문화재 제10호  | 각색편               | 기능           |
|                            | 11 | 대전무형문화재 제11호  | 단청장1<br>단청장2      | 기능<br>기능     |
|                            | 12 | 대전무형문화재 제12호  | 악기장(북메우기)         | 기능           |
|                            | 13 | 대전무형문화재 제13호  | 들말두레소리            | 예능           |
|                            | 14 | 대전무형문화재 제14호  | 가곡                | 예능           |
|                            | 15 | 대전무형문화재 제15호  | 승무                | 예능           |
|                            | 16 | 대전무형문화재 제16호  | 초고장               | 기능           |
|                            | 17 | 대전무형문화재 제17호  | 판소리 고법            | 예능           |
|                            | 18 | 대전무형문화재 제18호  | 악기장(가야금제작)        | 기능           |
|                            | 19 | 대전무형문화재 제19호  | 무수동산신제            | 전통의례         |
|                            | 20 | 대전무형문화재 제20호  | 살풀이춤              | 예능           |
|                            | 21 | 대전무형문화재 제21호  | 입춤                | 예능           |
|                            | 22 | 대전무형문화재 제22호  | 판소리 춘향가           | 예능           |
|                            | 23 | 대전무형문화재 제23호  | 향제줄풍류             | 예능           |
|                            | 24 | 대전무형문화재 제24호  | 목기장               | 기능           |

이들 종목 가운데 대전무형문화재 제3호 상모제작은 해제되었다. 상모제작 기능보유자가 돌아가면서 전승이 중단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정종목이 해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비해 대전무형문화재 제2호는 안택굿·미친굿분야의 신석봉과 설위설경분야의 송선자가 각각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또 주조(酒造)와 관련하여 송순주의 윤자덕과 국화주의 김정순이 각각 대전무형문화재 제9-가호, 제9-나호로 지정되었고, 단청분야에서도 이정오와 김성규 2인이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단청장으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진의 과제수행은 해제된 상모제작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비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종목 선정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하였다. 그 기준은 역사성과 현재성, 지역성, 희소성, 시의성이다. 이 기준은 2017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우리나라 농경의례 무형문화유산 종목 발굴에서 적용한 것으로 그동안 무형문화유산의 항목선정에 긴요하게 쓰여 왔다.

〈표-2〉 비지정 무형문화재 항목 선정기준

| 준 거 | 내 용                                                                       | 비 고 |
|-----|---------------------------------------------------------------------------|-----|
| 역사성 | 50년 이상 전승되어 내려온 것<br>역사적 문헌이나 구전 기록이 있는 것<br>미래 존속 가치가 있는 것               |     |
| 현재성 | 세대 간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br>발굴·복원 된 유산이라도 현재적 전승이 확인 되는 것<br>현재적 기능과 가치가 농후한 것 |     |
| 지역성 | 전승 지역의 인문·자연적 환경이 농후한 것<br>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전승되는 것<br>지역적 특징과 대표성이 인정되는 것    |     |
| 희소성 | 소수의 개인, 집단에 의해 전승되는 것<br>유일의 가치가 있는 것                                     |     |
| 시의성 | 전승 단절의 우려가 있어서 유산의 보호가 시급한 것<br>현 시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                           |     |

본 연구진은 지난 3월 이래로 대전광역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자체 회의를 통하여 항목 선정 작업을 시도하였다. 항목 선정의 기준은 위 〈표-2〉에서 제시한 5가지 준거이다. 이 준거에 근거하여 아래의 30개 비지정 무형문화재 종목을 도출하였다.



〈표-3〉 비지정 무형문화재 종목

| 무형유산의 범주                 | 종목               | 비고              |
|--------------------------|------------------|-----------------|
| 전통적 공연·예술                | 가야금 병창           | 예능              |
|                          | 거문고 산조           |                 |
| 공예, 미술 등에 관한<br>전통기술     | 전통 대장간           | 기능              |
|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br>관한 전통지식 | 금강의 전통어로 독살      | 전통지식            |
| 구전 전통 및 표현               | 계족산 명산전설         | 구전, 문헌          |
|                          | 안동권씨 집안 전승 계녀잠   |                 |
| 의식주 등 생활관습               | 구죽 도토리묵          | 의식주             |
|                          | 탄옹 권씨 시제음식       |                 |
| 민간신앙, 종교 등<br>사회적 의식     | 성북동 마을숲          | 민간신앙,<br>사회적 의식 |
|                          | 터주대감 터주신앙        |                 |
|                          | 줄굴 석장승과 거리제      |                 |
|                          | 외삼동 칠성신앙·산신제·거리제 |                 |
|                          | 국사봉 토제마          |                 |
|                          | 산내 공주말 디딜방아뱅이    |                 |
|                          | 법동 석장승과 거리제      |                 |
|                          | 뒷굴 석장승과 거리제      |                 |
|                          | 용운동 석장승과 탐제      |                 |
|                          | 동광교 장승·숫대와 거리제   |                 |
|                          | 삼정동 오방탐과 탐제      |                 |
|                          | 괴곡동 칠석 목신제       |                 |
|                          | 덕명동 옥녀봉 산신제      |                 |
|                          | 화암동 미륵과 석산제      |                 |
|                          | 성북동 금수봉 산신제      |                 |
|                          | 당아래 장승과 거리제      |                 |
|                          | 금동 석태산 산신제       |                 |
|                          | 창계 송절사 제향        |                 |
|                          | 김정 불천위제사         |                 |
|                          | 계족산 무제           |                 |
| 전통놀이·축제<br>및 기예·무예       | 무수동 종경도놀이        | 놀이              |
|                          | 각궁               | 무예              |

### 3. 과제수행 결과와 의의

24개 지정 무형문화재 종목은 기왕에 지역성, 역사성, 현재성 등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확정된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진이 별도의 조사연구보다 기존 자료 및 문답자료를 활용해 원고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비지정 무형문화재 종목은 기존 자료를 포함하여 현지조사 및 전승주체와의 면담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그런 점에서 지정 종목보다는 비지정 종목에서 새로운 자료발굴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비지정 무형문화재가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례 몇 가지를 아래에 제시한다.

#### 1) 공동체의례

우리시의 비지정 무형문화재는 민간신앙 가운데 공동체의례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산신제를 비롯하여 거리제, 탑제, 목신제, 장승제와 같은 여러 유형의 공동체의례가 예로부터 전승되어 왔기 때문이다. 1960년대 무렵 우리시의 공동체의례는 100여 마을에서 시행되어 왔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마을에서 의례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이번 과제에 있어서도 외삼동을 비롯한 줄곧, 법동, 용운동 등의 다수 공동체의례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그림 6 산디마을 산신제



그림 7 산디마을 탑제



그림 8 산디마을 샘제



그림 9 유천동 산제당 산신도



그림 10 옹호동 하산디 장승과 돌탑



그림 11 외삼동 칠성당

이들 공동체의례는 문명화·도시화의 과정에서도 전승이 유지된 종목이다. 그동안 우리시의 다수 공동체의례가 도시개발과 시대흐름의 물결에 의해 소멸되었다. 토착 민속에 대한 편협나 비판적 시각을 비롯해 주민 고령화로 인한 전승주체의 포기로 상당수 의례가 중단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의례는 나름의 역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승자들이 의례를 통한 공동체의 안녕이나 번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2) 마을숲

이번 과제에서 관심을 두고 조사한 종목의 다른 하나는 마을숲이다. 사실 마을숲은 비보(裨補)풍수의 전통에 의해 조성되어 오던 전통문화유산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마을 비보풍수관이 널리 전승되었던 것이나 근래 들어나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한 예로 우리 대전시의 유성구 상대동 중동골 마을 입구에 버드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이들 버드나무는 마을의 지세로 인한 지기(地氣)의 이탈을 막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었다. 그런데 대전 서남부 도시개발과 맞물려 이들 버드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마을 비보풍수는 마을에서 생성되는 땅의 기운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땅의 기운이 마을에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을 입구가 적절히 닫혀있어야 된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마을 입구의 좌우 산줄기를 좌청룡 우백호로 보고, 이들 좌우가 서로 교차하듯 막아서야 지기를 가둘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기를 가두게 되면 마을의 터와 상생 작용을 이루어 주민들에게 그 기운이 돌아가고 삶의 안정이나 번영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마을 입구가 열려 있을 때 나무를 심거나 흙을 가져다 작은 언덕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산을 꾸미고 그 위에 탑을 쌓기도 하였다.





그림 12 마을길을 따라 식재된 느티나무



그림 13 용두탑과 느티나무

어떻든 지기를 가두기 위해 수목식재, 마을숲 조성, 탑이나 장승을 세우는 등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우리시의 경우 중동골의 비보숲, 서구 매노동의 비석조성, 장동 산디마을의 비보숲과 조탑(造塔), 봉산동 거리제 선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과제에서는 이 같은 비보숲의 대표성을 지닌 성북동 윗자씨의 마을숲을 조사하였다. 비보숲을 조성해야 하는 마을의 입지로부터 유래와 관련된 자료 및 주민 인식을 본 과제수행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 3) 『계녀잠』

무수동에서 발견한 『계녀잠(戒女箴)』도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다. 『계녀잠』은 무수동 일대에 거주하는 안동권씨 집안의 유물이다. 대개 『계녀서』류는 혼인하는 여성이 부모로부터 받는 서책이나 서간형식의 글이다. 그 내용은 부모 섬김의 도리, 남편과의 관계맺음이나 보조역할, 자녀교육, 집안 살림살이 등으로 꾸며져 있다. 무수동 안동권씨 집안의 『계녀잠』 또한 혼인하는 젊은 여성에게 건네는 여훈(女訓)으로 꾸며져 있다.

본 연구진의 조사결과 이 서책은 우암 송시열이 무수동 권씨 집안으로 출가하는 큰딸에게 내려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책은 부모 섬김의 도리, 지아비 섬김의 도리, 시부모 섬김의 도리, 형제 간 화목의 도리, 친척 간 화목의 도리, 자식 가르치는 도리, 제사 받는 도리, 손님 대접하는 도리, 재물을 절제해 쓰는 도리, 노비 부리는 도리, 일을 부지런히 하는 도리, 병환을 돌보는 도리 등을 담고 있다.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때그때 참고할 만한 사항을 모아둔 것으로 아버지의 딸에 대한 염려와 애정이 담겨 있는 서책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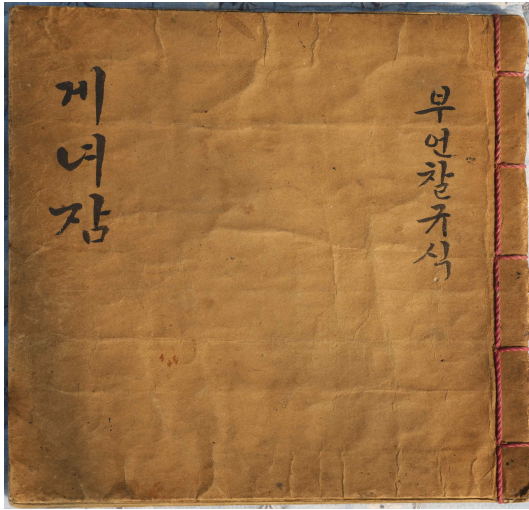


그림 14 무수동 안동권씨 소장 『계녀잡』



그림 15 은진송씨가 『우암송선생계녀서』

이 『계녀잡』은 한글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문장은 20세기 초의 한글 문장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무수동 안동권씨 『계녀잡』은 우암 송시열(1607~1689)의 『계녀서』 원본이라고 하기 어렵다. 추정컨대 무수동 안동권씨 집안에서 유통되는 『계녀서』 필사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부연하면 『계녀서』의 원본이나 필사본을 이 무렵에 다시 베낀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그러하더라도 이 『계녀잡』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할 만한 것이다. 1939년 대동인쇄소에서 『우암계녀서(尤庵戒女書)』를 간행한 바 있으나 그 수가 제한적이다. 또 그 책과는 다른 필사본이라고 하는 점도 고유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떻든 본 자료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4) 종경도놀이

오늘날 전통놀이는 거의 전멸한 상태이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전통놀이를 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수업이나 입시에 내몰려 전통놀이를 접할 기회가 없다. 또한 전통놀이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대적 게임이 있다 보니 몸을 움직여야 하는 전통놀이에는 관심이 없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기 등이 도처에 널려 있어 언제든지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종경도(從卿圖)놀이>를 발견하였다. 이 놀이는 무수동 안동권씨 집안의 청소년들이 행하던 것이다. 사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반가의 청소년들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종경도놀이>를 하였었다. 청소년들은 놀이를 통하여 출사를 꿈꾸기도 하고 중장년층의 사람들은 이 놀이를 통하여 내기를 하는 예도 있었다.



그림 16 종경도 놀이판

조선시대의 관직은 등급이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고 그에 따른 칭호도 많았다. 따라서 반가의 자제들에게 이들 관직의 등급이나 칭호를 알려줄 목적으로 시작된 놀이가 <종경도놀이>이다. 무수동 종경도는 놀이판에 264칸이 배치되고, 그 각각에 관직명이 나열되어 있다. 한자본과 한글본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놀이판 하단에 규칙을 설명해 놓았다. 놀이도구는 오각형의 윤목(輪木)으로 각 부위에 하나로부터 다섯 개의 눈금을 표시해 두었다. 무수동에서는 이 윤목 대신 윗가락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놀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인생사 희로애락이 깔려 있다. 유학(幼學)으로부터 영의정에 이르기까지의 길이 노력에 의해서만 되지 않음을 읽을 수 있다. 놀이 과정에서 귀양을 간다거나 좌천을 하는 등의 함정이 있고, 드물지만 사약을 받아 놀이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놀이 자체가 다양한 스토리로 얹혀 있어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다.





그림 17 기산풍속도 〈종경도치기〉

전승적 관점에서 볼 때 원형유지나 변형시도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과의 접목을 위해서는 변형의 모색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관직명에 현대의 시대성을 부여한다거나 함정이나 질곡과 관련된 사항도 요즘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또한 옛 종경도의 다양한 변수를 현대적 개념으로 바꾸어 보다 현실적인 놀이가 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 5) 토제마

무수동 주민들은 한때 산신제를 지내면서 흙으로 빚은 말을 봉안하였다. 산제를 지내는 제단의 중앙에 여러 마리의 말을 늘어놓고 제사를 지낸 것이다. 이 마을에서 이와 같이 말을 봉안하고 산신제를 지낸 데에는 마을 뒷산에서 토제마(土製馬)가 수습된 데 따른 것이다.



그림 18 국사봉 출토 토제마

무수동 마을 뒷산은 국사봉으로 불린다. 국사봉이란 지명은 우리나라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처럼 다수의 국사봉이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 것은 제의와 관련되어 있다. 조

선시대에 국가적으로 대 유행을 했던 국사제(國師祭)가 바로 그것이다. 국사제는 지방관청이 중심이 되어 지내던 제의이기도 했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민간으로 전파되었다. 개개 마을에서 그들의 마을 안녕과 번영을 기원할 목적으로 국사제를 지낸 것이다.

무수동의 국사봉에서 발견된 토제마도 이 국사제의 전통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사실 국사제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점차 동력을 잃게 된다. 그러면서 산신제에 흡수되거나 급격히 쇠락하기에 이른다. 요컨대 무수동의 국사신앙도 이러한 추세에 맞물려 산신제 흡수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런데 이러한 국사제의 산신제 흡수 추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일단 무수동에는 조선후기부터 산신제가 존재하였음을 밝혀주는 『무수동 산신제 동계첩』이 있다. 이 동계첩에는 산신제의 내력으로부터 축문, 진설도, 계원명부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동계첩에서는 국사제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현재 전승되고 있는 문헌 만으로 국사제 존재 유무를 논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사제와 산신제 간의 연계와 관련된 자료는 빈약하다 하겠다.

어떻든 토제마는 국사신(國師神)을 실어 나르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국사신이 머무르는 천상공간으로부터 지상의 제의 공간까지 이동을 대행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토제마는 신을 보좌하는 존재로서의 신격성을 지닌다. 사람들이 이들 이동수단으로서의 말을 신물(神物)로 여기고 신앙하는 것도 이러한 관념에 의한다.

요컨대 무수동 국사봉에서 발견된 토제마는 국사제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시에는 국사제의 전통과 연관된 의례가 희소한 편이다. 이 점은 옛 마을신앙이 대부분 문서를 남기지 않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리 대전시에 국사제의 전통이 발견된다면 그 또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과제수행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 6) 창계 송절사 제향

창계(滄溪) 송절사(崇節祠)는 대전 중구 안영동 해철산자락에 위치한 사우(祠宇)이다. 이 사우는 밀양박씨 청재공파(淸齋公派) 16세손 박연황(朴淵璜)이 지역 유림의 지지를 받아 1923년에 창건하였다. 당시 송절사 인근의 안영동 도장골과 원안영, 신봉 등에는 밀양박씨 청재공파 후손들이 흩어져 살았었다.

창계 송절사에는 단종복위를 도모하다 자결한 박심문(朴審問, 1408~1456)과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의 신주가 봉안되어 있다. 청재공의 후손들이 조상을 모시는 사우에 박팽년을 배향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두 분이 단종복위를 동모(同謀)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침 박팽년이 회덕(懷德)을 연고로 한 인물이라고 하는 점도 작용했다.



박심문은 1436년 세종 때에 진시문과에 급제한 인물이다. 함길도절도사 김종서(金宗瑞)가 북방에 육진을 개척할 때 그 종사관(從事官)으로 활약하였고 야인(野人)에 대한 안무책(安撫策)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1453년(단종 1) 계유정난(癸酉靖難) 때에 김종서 등이 세조에 의해 살해되자 크게 분개하여 조정에 출사하지 않았다. 이 무렵 그는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 등과 왕래하면서 단종복위를 도모하였다.

그는 일찍이 세종과 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또한 문종으로부터 성삼문 등과 함께 단종을 보살피 달라는 고명(顧命: 왕이 임종 때에 왕자나 대신에게 남기는 말)을 받았다. 그가 단종복위 도모에 동참한 것도 이러한 선왕의 고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심문은 1456년(세조 2)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귀국 하던 중 의주에 이르렀을 때 성삼문 등 육신이 참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사육신 등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주 숙소에서 독을 마시고 세상을 등졌다.

단종복위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충신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 가운데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이 당시 사건으로 인해 피화를 입은 인물 여섯 사람을 골라 그 행적을 기록으로 남겼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의 여섯 인물이 바로 그들이다. 남효온의 「사육신전(死六臣傳)」은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널리 읽혀졌고 6인은 충절을 갖춘 인물로 후세에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의주에서 음독 자결한 박심문은 이들 육신에 들지 못하였다. 동반한 사신 관료들이 참화를 면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쉬쉬 덮어버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임기응변으로 인해 그 가족들이 멸문의 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박심문의 단종복위 동모와 그로 인한 자결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이에 의하여 박심문은 정조 때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공주 숙모전(肅慕殿)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박팽년은 본관이 순천(順天)이고 호는 취금헌(醉琴軒)이다. 그는 대전 회덕(懷德)인이기도 하다. 1453년(단종 1) 우승지를 거쳐 이듬해 형조참판이 되었다. 그 뒤 1455년(세조 1) 충청도관찰사를 거쳐 다음 해에 다시 형조참판이 되었다.

1456년 성삼문·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兪應孚)·김질(金鎋) 등과 함께 단종 복위를 동모하였다. 하지만 김질이 세조에게 밀고해 체포되고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세조의 회유에도 굽히지 않고 죽음을 자처하였다. 그는 스스로 동모자가 성삼문·하위지·유성원·이개·김문기(金文起)·성승·박쟁·유응부·권자신(權自愼)·송석동(宋石同)·윤영손(尹令孫)·이휘(李徽)와 자신의 아버지 중립이라 대답하였다. 그는 극심한 고문으로 옥중에서 사망하였고 동모자들도 죽임을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아들 삼형제도 처형되었고 어머니와 처, 제수 등은 공신들의 노비로 끌려갔다.

박팽년은 숙종대에 관작이 회복되었다. 1758년(영조 34) 다시 자헌대부(資憲大夫)

의 품계를 받아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그러나 삼대가 화를 입은 멸문(滅門)이어서 그에 대한 자세한 행장이나 문집(文集) 등이 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강집』의 사육신 전이나 다른 글에 간헐적인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장릉(莊陵) 충신단(忠臣壇)과 영월 창절서원(彰節書院) 등 여러 곳에 배향되었다. 그의 절의를 기려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회덕박선생유허비 懷德朴先生遺墟碑>가 있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그림 19 송절사 향사



그림 20 분향과정



그림 21 제관들의 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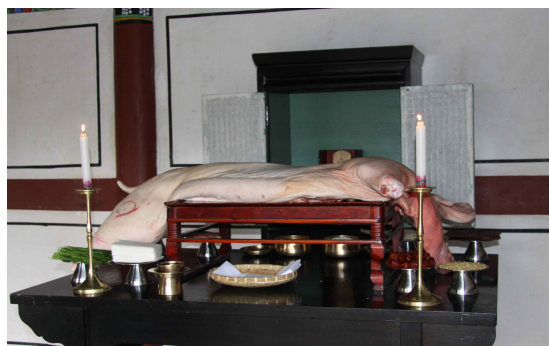


그림 22 제사상 위의 제물

오늘날 창계 송절사 제향은 청재공과 후손들과 유림들에 의해 매년 봄가을로 모셔지고 있다. 한때 춘추향사 때에 기백명이 참가할 정도로 성시를 이루었다. 전국의 유림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제향에 참여했었다. 교통편이 불편할 때에는 제향 하루 전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묵기도 하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자손이나 유림의 참여가 예전처럼 성황을 이루지 못한다.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면서 전승을 이끌어갈 주체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이탈 현상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전에는 송헌서원과 도산서원 등의 서원·사우가 존재하는데 이 두 곳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역동적인 전승을 위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적으로 취약한 대전에 충절의 표상이라 할 두 인물의 사우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정신사를 밝

혜줄 귀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종목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사실 비지정 30개 종목 가운데 비중이 낮거나 가치가 부족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이들 종목을 우선하여 제시한 것은 앞으로 우리시가 보다 관심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란 판단에서다.

## 4. 조사결과 검토를 통한 제언

### 1) 토착성과 역사성

시 무형문화재를 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시되는 것이 토착성(지역성)과 역사성이다. 토착성이란 지역 연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의 생성과 지속이 대전을 바탕으로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그리고 역사성은 해당 문화유산이 얼마나 오래도록 전승되어 왔는가에 대한 시간을 뜻한다. 그런데 이 요건은 지정 무형문화재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갈등 요인이 되곤 한다.

사실 대전광역시와 오늘날과 같이 인구 150만 명의 거대도시로 변모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대덕군을 포함한 우리시의 인구는 수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경부선, 호남선의 개통과 1930년대 충남도청이 이전되면서 점차 도시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인구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충청지역을 비롯한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지역 사람들이 대전으로 유입되면서 인구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전광역시는 전국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형성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를 평가할 때에 토착성이나 역사성에 지나치게 편향되면 이 같은 지역적 다양성을 수렴해내기 어렵다.

부연하면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를 선정할 때에 토착성이나 역사성의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정 무형문화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산 가운데 적지 않은 대상이 바로 이 역사성이나 토착성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 사안은 심사자에 따라 그 계측 잣대가 서로 다를 수 보이기도 한다. 평가 권역 밖에서 바라보는 연구자로서 기준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요컨대 하나의 문화소재가 토착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역사라 할 만한 시간 단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문화유산마다 서로 다른 계측 관점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진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기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 2) 보유자의 연계성

우리시에는 24개 종목의 시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다. 3종목에서 각 2인이 지정되고 한 종목은 지정 해제가 되었으므로 실제로는 26개 단체나 개인이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셈이다.

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보유자 1인에 후보자 1인, 이수자, 전수자의 구도로 유지되고 있다. 보유자를 중심으로 후보자나 이수자 등이 해당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으로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시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종목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회, 공연, 시연행사 등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시의 무형문화유산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외연을 확장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와 광역시·도가 지정한 지방 무형문화재가 있다. 이들 문화재는 한 번 지정되면 생존 시까지 보유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다보니 고령에 이르거나 질병 등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에 전승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안도 세울 수 없게 된다. 특히 단체 종목인 경우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하여 내부적인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리하여 보유자와 보존회가 서로 등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전승 또한 갈등의 한 가운데에 놓이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우리 대전시도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도를 유지한 지가 오래 되었다. 그래서 1세대 보유자 가운데에는 돌아간 이들도 있다. 이렇게 고령의 보유자가 사망하고 다시 차기 보유자를 정하는 데에는 쉽지 않은 심사과정이 따른다. 다른 시·도의 경우 심사과정을 통과하지 못하여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해제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요컨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제한연령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어서 조심스러우나 해당 종목의 원활한 전승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연령 기준은 보유자나 후보자, 이수자 등을 비롯한 전문가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할 수 있을 듯하다.

한 예로 80세 전후의 기점을 정하여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그 이후엔 명예보유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그러면서 보유자는 그 자격을 생전에 후보자에게 이양하고 이수자 가운데 후보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집단이든 문화든 세대교체가 정지되면 결국 그 주체는 활력을 잃게 된다. 활로가 보이지 않는데 새로운 세대가 동참할리 없다. 그렇게 되면 해당 문화유산은 전승 동력을 잃게 되고 궁극에는 전승이 중단되고 만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시 지정 무형문화재 주체가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하다.

### 3) 비지정 종목 활성화를 위한 방안 구축

우리시에는 다수의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이 존재한다. 개인을 중심으로 한 유산도 적지 않고 공동체의 유산도 다수가 있다. 그런데 이들 비지정 종목은 대부분 개인이나 공동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유지 전승되고 있다. 일부 공동체의례만이 지자체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을 뿐이다.

조사과정에서 겪은 경험으로 볼 때 개인이 중심이 된 무형문화유산은 접근이 제한적이다. 일차적으로 숨겨져 있는 유산이 태반이라 소재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개인의 비공개 욕구나 접촉·공개 기피 등의 이유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해 마을이 중심이 된 공동체 문화유산은 연구자의 접근성이 보다 확대되어 있다. 공동체라는 개방성으로 인해 정보 확보나 취재 환경이 열려있는 것이다. 본 과제 수행에 있어서 공동체의례를 다수 다룬 것도 이에 연유한다.

공동체의례를 조사하면서 몇 가지 현장의 전승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첫째, 구성원들이 대부분 고령자라는 점이다.

우리시 공동체의례는 대부분 산신제나 거리제, 목신제, 장승제, 탑제 등의 마을신앙이다. 그리고 그 의례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절대 다수가 7~80대의 고령자들이다. 가뭄에 콩 나듯 소수의 젊은이들이 있을 뿐이다.

둘째, 의례 수행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한다.

과거에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걸립을 하였었다. 또는 대동계를 구성하여 계급의 일부로 비용을 충당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례 비용을 조달하는 사례가 남아있다. 또는 걸립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 참여자들이 십시일반 일정 금액을 거두어 비용으로 사용한다.

셋째, 참여자가 제한적이다.

과거의 의례는 온 마을 사람들이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근래의 의례는 제한적인 사람만이 참여한다. 이 점 또한 주민들의 연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 말고도 현장의 공동체의례 전승문제는 위기라 할 만큼 난제가 적지 않다. 2020년 현재 시점에 이들 공동체의례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승현황을 시에서 파악하고 또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시의 유형문화재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유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수 등을 통하여 온전한 전승을 꾀하고 있다. 비지정 무형문화재도 이러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실 의례 전승을 위해 의례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만으로도 개개 마을은 상당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 공동체의례의 중단이나 붕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다. <끝>





# 02

## 대전 무형유산의 전승과 의미 - 동제를 중심으로 -

조도현(한밭대학교)



# 대전 무형유산의 전승과 의미

## － 동제를 중심으로 －

조 도 현 (한밭대학교)

### 1. 머리말 - 동제 전승의 변화

여느 지역의 마을과 마찬가지로 대전에서도 동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예전의 동제와는 형태 및 내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산신제, 거리제, 탑제, 장승제 등을 통해 마을의 액운을 막고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무사안녕을 축원한다. 다만 마을 환경과 전승 주체에 따라 동제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변화를 보이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 주요 요인으로 각종 상업시설과 아파트 단지의 건립, 도시 외곽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구성원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대전 지역 동제의 조사 과정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동제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중단된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동제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고, 그 의미와 가치 또한 두드러진 면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대전의 동제는 과거보다 신성성과 금기 사항이 약화되었지만, 지역문화 활성화로 마을 주민들을 아우르는 화합과 결속의 기능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여전히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동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문화원의 후원과 주민자치단체의 결성으로 조직화하여 확장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동제의 향후 발전 방향 또는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동제를 지역 축제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형유산의 미래가치를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에 몇 가지 마을제의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동제 전승의 현황과 성격

필자가 조사한 동제 가운데 7개의 항목을 골라 현재 전승되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동제의 전통을 계승한 경우로 화암동 미륵과 석산제, 덕명동 옥녀봉 산신제, 성북동 금수봉 산신제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마을축제의 성격으로 변모한 경우로 법동 석장승과 거리제, 동광교 장승·숫대와 거리제, 용운동 석장승과 탑제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동제 소멸 후 민속예술로 복원된 경우로 계족산 무제가 이에 해당한다. 각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동제의 전통을 계승한 경우

#### ① 화암동 미륵과 석산제

화암동 석산제는 매년 음력 1월 14일에 적오산에 있는 산신제단과 돌미륵 앞에서 화암동 설목마을 주민들이 지내는 산신제이다. 화암동 석산제는 5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으며, 마을의 무사 안녕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거행한다.

예전에는 음력 10월 30일에 열리는 대동계에서 유사 5명을 선정했다. 또한 유사는 모든 마을 주민들이 번갈아가며 의무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생기복덕과는 무관하며 특별한 금기도 부과되지 않았다. 유사는 제물의 준비를 전담하기 위해 여성이 선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당일 산제는 통장이나 마을에서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제관을 맡았다. 유사는 시장에 가서 돼지머리, 삼색실과, 포 등의 제물을 구입하고 산제에 사용할 술을 담갔다. 또 마을에서 초상이나 출산이 있는 경우 1주일쯤 연기하여 산제를 지내며, 유사가 제 지내기 전에 부정을 보거나 굶은일을 당하면 당사자만 제에 참가하지 않고 제는 그대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통장을 중심으로 제례는 노인회, 음식 준비는 부녀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석산제 준비는 먼저 음력 1월 3일경에 회의를 거쳐 석산제의 제수 준비와 제례 역할 분담 등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수는 삼색실과와 떡·술·고기 등을 마련하는데, 산신제단과 돌미륵에 각각 제를 지내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다. 제단에 올라가는 술은 전통주를, 고기는 돼지고기만 구입해서 올린다.

석산제는 오전 10시 30분쯤에 거행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목마을의 통장이 석산제의 유래와 취지를 간단한 설명하고, 이어 마을 노인회장이 축원문을 봉독한다. 이후 제관복을 갖춘 지역의 대표들이 각각 산신제단에 술잔을 올리고 주민들

의 화합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절을 올린다. 적오산을 관장하는 산신께 먼저 제를 올려야 노여움을 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산신제 후에는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돌미륵 제단에도 동일한 절차로 제를 올린다. 끝으로 소지를 불살라 한 해의 나쁜 액운을 날려 보내며 행사를 마무리하는데, 전체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석산제의 모든 절차를 마치면 마을회관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뒤풀이 시간을 가진다.

## ② 덕명동 옥녀봉 산신제

덕명동 옥녀봉 산신제는 유성구 덕명동 화산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매년 음력 1월 7일 계룡산 옥녀봉에서 지내는 제의이다. 산신제를 지내는 제단은 옥녀봉 중턱에 있는데, 이곳에는 수령이 약 300년에 이르는 노송이 있어 그 아래에 제단을 설치하고 지낸다.

현재 산신제는 동계(洞契)에서 주관하여 모시고 있다. 동계는 1960년대부터 활성화되었는데, 마을의 대소사를 모두 동계에서 결의하고 집행한다. 예전에는 개인별로 모셨던 산신제를 재개하면서 동계에서 일괄하여 주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더 결속력 있게 행사를 치르고 있다. 동계 회원은 약 40명 정도이며, 그중 산신제에 직접 관여하는 주민들은 10여 명이다. 그리하여 동계장을 중심으로 통장, 노인회장, 마을지도자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들이 산신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곳에 모신 산신을 옥녀봉산왕대신(玉女峰山王大神)이라 칭한다. 옥녀봉 산신제는 매년 음력 1월 7일 오전 10시경에 지내는데, 예전에는 정월 대보름에 지냈다. 그 후 단절되었던 산신제를 다시 지내기 시작하면서 제일을 변경하였다. 즉 설을 쇠 후 본격적인 외부와의 접촉으로 부정 타는 일을 없애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제 올리는 시각도 기존의 격식에 따르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편히 모일 수 있는 때를 찾아 오전 10시로 합의하여 정했다.

예전의 제수 준비는 유성장에 나가서 보는데 쇠고기, 돼지고기 닳근 정도, 명태포, 과일 다섯 가지, 부침 한 가지, 청주 3병 정도를 준비시켰다. 또한 메와 시루떡을 비롯한 제물 준비는 부정을 가리기 위하여 산제당 부근에 있는 절인 명화사에 부탁하였다. 절은 깨끗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제물은 비교적 안심하고 산에 올릴 수 있다는 생각도 작용한 듯싶다. 절에서는 육고기를 다루는 일이 내키지는 않지만, 마을의 무사안녕을 위해 위탁한 일이어서 거절하지 않고 산제를 대행해 주었다. 참가 인원은 산제 대표, 통장, 지도자, 동계장 등 5명과 짐꾼 일행 약간 명이 따랐다.

현재 제를 주관하는 제주, 축관, 유사는 동계장, 통장, 노인회장이 각각 분담하며, 산신제를 올리기 전에 동계를 주관하는 주민 3~5명이 미리 장을 보아 제수를 마련한다. 마을 사람들이 낸 회비를 공동 기금으로 사용하여 과일, 생선, 쇠고기, 돼지고기,

떡, 술을 준비한다. 과일은 대추·밤·배·감 외에 귤·사과·바나나 등을 추가하여 다섯 가지 또는 일곱 가지의 홀수로 올린다. 떡을 찌고, 전을 부치고, 가정에서 직접 담근 술을 마련하는 일은 마을 부녀회에서 맡는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제수를 정성껏 꾸밈하게 준비하는 데 있다.

산신제를 지내는 주민들은 오전 9시 30분경 마을에서 출발하여 10시 전에 제단에 도착한다. 예전에는 지계를 지고 힘겹게 제수를 옮겼지만, 지금은 제단 아래까지 차를 운행하여 편리해졌다. 제의 절차는 간소하게 분향, 강신, 헌작의 순으로 진행한다. 헌작은 커다란 그릇에 준비한 술을 한 번에 따르고 참가한 주민들 모두 절을 올린다. 산신제의 모든 과정이 끝나는 시간은 20분 이내의 짧은 과정이다. 산신제를 끝낸 주민들은 다시 마을로 내려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여흥을 즐긴다.

### ③ 성북동 금수봉 산신제

성북동 금수봉 산신제는 매년 음력 10월 3일 성북1통(신평, 새뜸, 윗잣뒤) 주민들이 계룡산 줄기의 금수봉에서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이다. 산신제는 매년 음력 10월 3일 자정에 지내오다가, 2006년부터 양력 12월 15일로 제일을 변경한 후 2016년부터 본래 날짜대로 환원하였는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으로 옮겨 지내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금수봉 산신제는 조상 대대로 지내왔다고 하는데, 그 연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금수봉 산신제는 마을에서 선정된 제주, 축관, 유사가 주관했다. 이들 제관은 본래 부정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 선출하는 것이 마을의 오랜 관례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이들이 외지로 출향하고, 남은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제관을 뽑는 일이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현재는 동계장이 제주를 담당하고 통장이 제반 절차를 주관하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축관은 마을 주민 중에서도 한 사람이 맡으며, 유사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지내기 전에 제수를 준비한다. 예전에는 밥과 미역국, 나물(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쇠고기 산적 등을 제물로 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밥과 국을 놓지 않고 돼지머리, 북어포, 과일, 술, 떡 등으로 간소하게 제사를 지낸다. 제수 비용이나 행사 관련 비용은 마을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유성구청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다. 제수는 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하여 준비한다. 제관을 맡은 이들과 산신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 되면 산제당에 오를 준비를 한다.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30명 정도가 참여한다. 외지에서 산신제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손님이나 풍물놀이를 하러 오는 풍물단도 종종 초청되어 참여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도보로 이동했지만, 지금은 자동차를 이용한다.

마을 북쪽에 위치한 금수산을 향하여 500m 가량 올라가면 약사암이 나타나고, 그 전면 시내 건너편에 제장이 있다. 제장에는 너럭바위가 있고 그 주변에 큰 참나무가 서 있는데, 너럭바위가 제물을 차리는 제단 역할을 한다. 이 바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최근 제장 주변을 정리하고 시설 정비를 해서 산신제를 정갈하게 지내는데 손색없도록 단장하였다. 산신제에 쏟는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산신제의 절차는 기제사와 유사하다. 제주가 제단 전면에 부복하여 분향, 강신하면 제사에 참여한 마을주민들이 다 함께 참신한다. 제주가 헌주를 한 뒤 축관의 독축이 끝나면 제주나 축관과 유사 등이 이어서 술을 올린다. 술은 석 잔을 올리며, 술 올림을 마친 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지를 사른다. 산신제를 마치고 나면 제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현장에서 음복한다. 제주로 술을 한 잔씩 돌리고 과일이나 떡 등의 음식을 먹은 후 남은 제물을 거두어 마을회관으로 돌아온다.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점심을 함께 먹고 풍물을 치는 등으로 즐거운 여흥을 갖는다.

## 2) 마을축제로 변모한 경우

### ① 법동 석장승과 거리제

법동 거리제(석장승제)는 음력 1월 14일 저녁에 마을의 액운을 막고 주민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석장승에 올리는 동제이다. 과거에는 산신제로 지냈으나 현재는 소멸되고 동제로 전환되었다. 제일은 과거 상달 혹은 동짓달에 길일을 택일하여 지내다가 그 후 음력 1월 14일 자정에 지냈다. 현재는 음력 1월 14일 저녁에 지내고 있다. 기금 마련도 과거에는 풍물패가 집집마다 걸립하다가 마을기금으로 운영한 후 지금은 대덕구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동 석장승은 도시개발로 없어진 범천골에 위치했던 장승을 지금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예전에는 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와 마을 입구에 세운 장승에 거리제를 지냈으나, 현재는 거리제만 복원하여 지내고 있다. 본래 남장승은 도랑을 기준으로 마을 입구 북쪽에 검은색 선돌과 함께 서 있었고, 여장승도 반대편인 마을 입구 남쪽에 선돌과 함께 서 있었다. 석장승은 법동이 재개발되면서 대덕구청으로 옮겨졌다가 지금의 위치인 법동 입구 도로에 마주 세워 전통적 의미를 어느 정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법동 석장승은 남장승과 여장승 각각 하나씩 총 두 기가 있으며, 장승 옆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선돌이 하나씩 서 있다.

거리제가 임박하면 장승 앞에 잡귀나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황토 여섯 무더기를 뿌려놓고 금줄을 친다. 행사 전 풍물단은 마을을 돌면서 풍물놀이를 하며 액운을 물리치고, 주민들에게 흥을 돋운다. 제물은 삼색실과, 시루떡, 백설기, 조기 등을 올린다. 예전에는 소머리를 놓았으나 근래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제사 비용은 음력



1월 3일경에 풍물패가 돌아다니며 걸립을 하였는데 지금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음력 1월 5일경에 마을회의를 열어 제관·축관·유사를 선정하는데, 책력을 보아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닳고 집안에 과년한 처녀나 젊은 며느리가 없는 집이어야 한다. 제관, 축관, 유사로 선정되면 제를 올리기 3~4일 전부터 대문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퍼서 부정한 사람이 왕래하는 것을 금하고, 외부 출입을 삼간 채 매일 찬물로 목욕재계하고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거리제 당일이 되면 유사의 집에서 제물을 준비한다. 제사의 절차는 유교식 기제사와 비슷하다. 제관이 분향, 강신한 뒤 잔을 붓고 재배하면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독축을 한 후 아헌, 종헌, 첨작, 소지의 순으로 진행한다. 소지는 예전에는 집집마다 대주소지를 올리고 가축소지도 올렸으나, 지금은 대동소지 하나로 모두 올리며 제관, 축관, 유사, 마을 대표자, 군대 간 사람 등을 위해 따로 하나씩 올려준다. 제의를 마치면 풍물패는 풍물을 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끝을 맺는다.

## ② 동광교 장승·숫대와 거리제

동광교 거리제(대동 장승제)는 마을의 무병재액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석장승에 올리는 동제(洞祭)이다. 매년 음력 1월 14일 저녁 6시에 대동장승제봉행위원회 주관으로 마을 주민들이 장승터에 모여 올린다. 동광교 장승은 대동교를 지나 우측에 있는 대신새들피 휴면시아아파트 단지 앞 천변에 위치한다. 바로 옆에 숫대가 함께 서 있는데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수호를 위해 마을 입구에 세웠다. 마을 주민들은 도시가 번창함에 따라 사라져 가고 있는 민속신앙을 재현하고자, 부근에 흩어져 있던 석장승과 없어진 신앙물을 1988년 12월에 다시 제작하여 이곳에 안치하였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걸립을 돌아 비용을 충당했으나, 마을 규모가 커지면서 걸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의에 참여하는 주민도 예전 같지 않아 1980년대 말부터 노인이 제의를 주관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대동장승제봉행위원회가 결성되고 동구청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주민들과 지역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각출하여 제사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장승제 일주일 전부터 대문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퍼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장승제를 지내기 열흘 전에 장승 주위를 정화한다. 제관 스스로도 가급적이면 외부의 출입을 삼가고 매일 찬물로 목욕재계하며 근신한다. 본래 제를 올리기 10일 전부터 생기복덕을 보고 부정을 겪지 않은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하였으나, 지금은 20명 내외의 봉행위원이 준비를 하고 제관은 위원장이 맡고 있다.

제수를 준비하는데도 집안에 태기가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으며, 제관과 마찬가지로 생기복덕이 충만하고 정갈한 여성이 제수를 준비한다. 지금은 마을부인회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날이 저물면 제관 일동은 제수를 준비해서 장승이 있는 곳으로 간

다. 제수는 돼지머리, 떡, 삼색실과 산자, 포, 무탕, 두부탕, 나물, 술 등을 마련하는데 상석을 중심으로 양옆에 두 개의 상을 놓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제관, 축관, 아헌관, 종헌관이 나란히 서서 제를 올린다.

장승제의 전체 소요 시간은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이다. 먼저 참석 인사는 제복을 착용하는데 제관의 복장은 유사와 축관이 흰두루마기에 검은 탕건을, 아헌관과 종헌관은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탕건을 쓴다. 내빈 소개와 인사 등 식전 행사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거리제를 봉행한다. 순서는 여느 거리제와 큰 차이가 없다. 진찬, 분향, 강신, 참신을 마치면 첫 술잔을 올리는 초헌을 진행한다. 이어 천지신명께 고하여 비는 고축, 초헌관의 축관 재배 후 아헌과 종헌, 내빈 헌작, 사신 후 축원하고 소지를 마치면 철찬으로 마무리한다. 끝으로 달집태우기 후 정리를 하는 것으로 거리제는 모두 끝난다.

### ③ 용운동 석장승과 탐제

용운동 탐제의 대상은 한 쌍의 석장승으로 탐제는 매년 음력 정월 14일 저녁 7시경에 거행된다. 이를 통해 마을로 들어오는 질병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 과거에는 자시(子時)인 밤 11시를 기준으로 제를 지냈으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간을 옮겼다. 용운동 탐제는 이곳의 토박이인 풍천임씨 문중을 중심으로 전승되다가 1985년부터 마을에서 ‘용운동탐제봉행위원회’를 결성하여 매년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탐제는 3~4일 전에 마을회의를 열어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닿는 길한 사람으로 6명의 제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주로 선정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고 목욕재계하며 외부의 출입을 삼간다.

탐제가 임박하면 원새끼를 꼬아 금줄을 치고 탐 주위에는 황토를 퍼서 잡귀의 범접을 막는다. 황토는 인근 산에서 낙엽을 걷어 내고 깨끗한 것을 채취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예전에는 탐과 탐 사이를 금줄로 연결하여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했으나, 지금은 큰 도로가 나면서 탐의 몸체와 둘레에만 금줄을 친다. 금줄에는 한지를 끼워 장식한다. 먼저 제물을 진설하기 직전에 두 탐의 흠향을 위해 할아버지탐과 할머니탐에 짚으로 만든 오쟁이를 걸어 놓는다. 탐제가 끝나고 철상할 때 제물을 담아 흠향을 축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제물로 사용하는 과일은 껍지 않으며, 떡시루의 손잡이에는 깃대를 꽂아 명태를 걸어 놓는다.

할아버지탐의 제물 진설이 끝나면 축관의 집례에 따라 저녁 7시경에 탐제를 시작한다. 분향·강신 후 술을 붓고 절을 올리면, 이어 마을 주민의 염원을 담은 축을 읽는다. 축이 끝나면 아헌·종헌·첨작에 이어 소지를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제물의 일부를 조금씩 떼어 할아버지탐에 매달아 놓은 오쟁이에 담아놓는다. 예부터 할아버지탐에 걸려 있는 오쟁이를 떼어 가는 사람은 그해 운수가 가장 좋다는 속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쟁이를 가져가지 않고, 참석한 사람 모두에게 제물을 골고루 나누어 준다. 할아버지탑에 대한 제의가 끝나면 신명나게 풍물이 울리는 가운데 탑제에 참석한 주민들은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제관 일동은 약간의 제물을 준비하여 할머니탑으로 가서 간단하게 제를 지낸다. 할머니탑에 대한 제의는 약식으로 거행되어 초헌관이 재배한 후 우집사가 침작하는 것으로 탑제를 모두 마친다.

### 3) 동제 소멸 후 민속예술로 복원된 경우

계족산 무제가 이에 해당한다. 계족산 무제는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이다. 예부터 가뭄이 들면 회덕현 사람들이 계족산에 올라 암장(暗葬)한 묘를 파낸 다음 무제를 지냈다. 계족산 무제는 과거 회덕현의 성대한 기우제로, 옛 소재지였던 읍내동은 물론 대화동, 오정동, 중리동, 송촌동, 법동, 와동, 비래동, 연축동 등 인근의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의 행사였다.

계족산 무제는 회덕현의 대표적인 기우 행사로 하지가 지나도록 가뭄이 지속되면, 회덕의 주민들은 길일을 택하여 계족산 정상에 올라 비가 내리기를 축원하는 무제를 올렸다. 이때 무제는 부녀자들이 주관하는 유왕제(용왕제)와 온 고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우제로 구분된다. 부녀자들의 유왕제는 물을 관장하는 용신에 대한 의례로서 물 까부르기와 날긋이로 구성되며, 마을의 신성한 샘과 용소(넋물)에서 진행한다. 한편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무제는 계족산 상봉에서 거행하는 유교식 제의이다. 제관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및 축관, 집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초헌관은 고을의 군수나 면장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제물은 통돼지(혹은 돼지머리), 삼색실과, 통북어, 술 등이며, 돼지는 익히지 않은 생물을 쓰고 생선과 나물은 올리지 않는다. 무제가 거행되는 당일 저녁이 되면 마을별로 농기를 앞세우고 길군악을 울리며 읍내동으로 모여든다. 무제에 참석하는 주민들은 불을 지필 때 사용될 화목을 십시일반으로 분담하기 위해 모두 장작 세 개비씩을 지참하였다. 몇몇은 병에 물을 가득 담아 술가지로 주둥이를 막아서 거꾸로 향하게 한다. 그러면 술잎을 타고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렇게 계족산 초입부터 상봉에 이를 때까지 조금씩 물을 흘리며 올라간다. 또한 무제를 지내기로 한 날이 되면 주민들은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도롱이에 샷갓을 쓰고 산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계족산 상봉에 도착한 각 마을의 주민들은 주변에 황토를 뿌려 제장을 정화한 후 불을 놓아 주변을 환하게 밝힌 다음 암장한 시신을 파낸다.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 까닭은 누군가 자손의 발복을 위해 이곳에 몰래 묘를 썼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의 원인을 제거한 뒤에야 돛자리를 깔고 무제를 거행한다. 그 순서는 분향,

강신,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사신의 순으로 거행하되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무제를 마치고 준비해 간 장작더미 위에 솔가지를 얹어 불을 지피면 온 산이 불꽃과 연기로 휩싸인다. 방화는 산신에게 자신의 공간이 불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한편으로는 산신이 비를 내려 그 불을 꺼 줄 것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있다. 또한 무제에 참석한 일행이 풍물놀이를 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천신께 간곡히 호소한다.

### 3. 맺음말 - 동제 전승의 의미와 가치

지금까지 대전 지역 동제 전승의 현황과 성격을 일별해 보았다. 동제 전승의 변화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제 형식의 변화이다. 형식의 변화에는 일정(날짜, 제례시각, 소요시간), 제물,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일정은 대개 정월 대보름 밤 자시(子時)에 2~3시간 걸리던 것을 오전 또는 저녁 시간에 짧게 진행한다. 예컨대 덕명동 옥녀봉 산신제의 경우, 예전에는 정월 대보름에 지내다가 정월 초이레로 날짜를 변경하였다.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3시간이 걸리던 것을 20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마무리한다. 성북동 금수봉 산신제는 매년 음력 10월 3일 자정에 지내오다가, 2006년부터 양력 12월 15일로 제일을 변경한 후, 2016년부터 다시 본래 날짜대로 환원하였는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으로 옮겨 지내고 있다. 법동 석장승과 거리제는 과거 상달 혹은 동짓달에 길일을 택일하여 지내다가 이후 음력 1월 14일 자정에 지냈는데, 현재는 음력 1월 14일 저녁에 지내고 있다.

다음으로 제물을 들 수 있다. 성북동 금수봉 산신제는 예전 밥과 미역국, 나물(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쇠고기 산적 등을 제물로 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밥과 국을 놓지 않고 돼지머리, 북어포, 과일, 술, 떡 등으로 간소하게 제사를 지낸다. 제사 비용은 풍물패가 돌아다니며 걸립을 하던 것을 마을기금과 구청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두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의 참여 유도, 음식 문화의 간소화, 구성원의 유동성에 따른 기금 조성 방법의 변모에 기인한다.

둘째, 동제 주체의 변화이다. 과거의 화암동 미륵과 석산제는 유사는 제물의 준비를 전담하기 위해 여성이 선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당일 산제는 통장이나 마을에서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제관을 맡았다. 하지만 현재는 통장을 중심으로 제례는 노인회, 음식 준비는 부녀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성북동 금수봉 산신제는 마을에서 선정된 제주, 축관, 유사가 주관했다. 이들 제관은 본래 부정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

대상으로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 선출하는 것이 마을의 오랜 관례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이들이 외지로 출향하고, 남은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제관을 뽑는 일이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현재는 동계장이 제주를 담당하고 통장이 제반 절차를 주관하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축관은 마을 주민 중에서 한 사람이 맡으며, 유사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동광교 거리제(대동 장승제)는 마을의 무병재액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석장승에 올리는 동제(洞祭)이다. 매년 음력 1월 14일 저녁 6시에 대동장승제봉행위원회 주관으로 마을 주민들이 장승터에 모여 올린다. 최근 대동장승제봉행위원회가 결성되고 동구청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주민들과 지역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각출하여 제사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용운동 탑제는 이곳의 토박이인 풍천임씨 문중을 중심으로 전승되다가 1985년부터 마을에서 ‘용운동탑제봉행위원회’를 결성하여 매년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탑제는 3~4일 전에 마을회의를 열어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닿는 길한 사람으로 6명의 제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동제를 주관하는 위원회의 결성은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체계화, 정례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과이다.

셋째, 동제 성격의 변화이다.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동제는 공통적으로 농사의 풍년, 마을의 무사안녕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산업구조, 주거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사회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전술한 바대로 법동 석장승과 거리제, 동광교 장승·숫대와 거리제, 용운동 석장승과 탑제 등 마을축제의 성격이 강한 동제는 향후 동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동제는 모두 현재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인구가 밀집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법동 거리제는 도시개발로 없어진 마을의 옛 전통을 지역민들이 계승하고 있는 흔치 않은 사례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법동 석장승과 거리제는 세대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전승력을 확보한 살아 숨 쉬는 무형문화유산의 표본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에 석장승길을 조성하여 ‘스토리가 있는 정려의 길’이라는 테마와 연계한 아이디어도 참신하다. 매년 새해에 마을 주민들의 소망을 기원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축제로 지속된다면 법동 석장승과 거리제의 의미는 좀 더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대동에서는 동광교 거리제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주민화합을 위한 장승제 봉행 등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그리하여 동광교 거리제는 전통문화를 잇고,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며,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끝으로 용운동 탑제 때는 탑제 봉행과 함께 마을 주민들이 풍물놀이와 윷놀이 등의 여흥을 함께 즐긴다. 윷놀이는 용운동종합사회복지관과 할아버

지탑 앞에서 하는데 용운동행정복지센터 직원과 탐제봉행위원, 새마을부녀회원 등이 봉사하며 행사를 돕는다. 행사 절차와 방법은 과거와 달라졌지만 석장승을 매개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주민 간의 결속을 다지는 본래의 목적은 현재에도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



# 03

## 대전의 '문화유적'을 통해본 무형유산의 존재양상과 성격 - 국사봉 유적 출토 土製馬를 중심으로 -

강성복(충청민속문화연구소)





# 대전의 ‘문화유적’을 통해본 무형유산의 존재양상과 성격 — 국사봉 유적 출토 土製馬를 중심으로 —

강 성 복 (충청민속문화연구소)

## 1. 논의의 실마리를 찾아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은 유형문화 중심의 보호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산물이다. 이른바 ‘협약’의 등장 배경은 그동안 서유럽 중심의 문화보존 정책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지성의 움직임이 주요하게 작동하였다. 주지하듯이 그 목적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정의하는 ‘무형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와 집단,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practices), 표상(representation), 표현(expression),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및 이와 관련한 도구(instruments), 물품(objects), 공예품(artefacts) 그리고 문화공간(cultural spaces)을 말한다.

협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도 그 취지를 수용한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15년 3월 27일 협약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의거한 무형문화재의 범주는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학, 농경·어로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로 확장되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는 기존의 지정 문화재는 물론,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을 발굴·보전하고, 그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일부 예능과 기능 항목만을 집중 보호해온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제도, 부실한 지원·관리제도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각 계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2015년 4월 초, 당진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에서는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목록화 사업의 항목 선정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무형문화재 7가지 범주를 어떻게 당진시 항목 선정에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의 중심에 선 항목은 ‘농기문화’였다. 두레의 표상이자 마을공동체의 상징인 ‘농기(農旗)’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논란 끝에 ‘농기’는 17~18세기 이앙법의 확산과 함께 면면이 이어져온 두레풍물의 역사적 소산이고, 따라서 ‘농기문화’란 명칭으로 항목을 선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위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하나의 문화유산 속에는 유형·무형의 속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비근한 예로 고건축이나 전통공예품은 마땅히 유형문화재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 건축물을 탄생시킨 장인의 기술이고 전통지식은 무형문화유산의 산물이다. 이는 유형의 유산 속에 깃들여 있는 무형의 지식, 기술, 도구 및 가치를 모두 무형문화유산으로 아우르고 있는 유네스코 협약의 정신과 궤를 함께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중에는 문화유산의 성격에 대하여 재고를 요하는 유적이 있다. 문화재자료 제38호로 지정된 <국사봉 유적>이 그것이다. 국사봉은 대전광역시 중구 무수동 보문골 뒤편에 위치한 해발 245m의 산이다. 그 상봉에는 석축 흔적이 남아 있는 유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관련학계에서는 백제시대의 관방시설로 쌓은 산성이나 보루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석축의 축조기법이 백제시대 산성과는 확연하게 다른 후대의 것일 뿐 아니라 그 규모도 지나치게 작다. 또한 지표조사를 통해 이곳에서 수습된 유물은 11세기 이후의 청자편과 자기편·와편 등이다. 이와 함께 부서진 토제마의 머리와 다리 및 상평통보가 발견되어 그 용도에 대하여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들 유물의 실체를 추적하면 군사시설이라는 종래의 통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 재검토가 요구되는 바, 국사봉 유적은 조선시대 국사당이 존재했던 제사유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발표는 국사봉 유적에서 출토된 토제마(土製馬)와 상평통보를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해당유적이 민간신앙의 제장(祭場)으로 형성된 문화유산의 산물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 연장선으로 조선시대 이래 면면이 이어져온 마신앙(馬信仰)의 전통 속에서 국사봉 토제마의 성격과 신앙의 의미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폭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2. 국사봉 유적의 재검토

국사봉 유적은 대전광역시 중구 무수동 산30-1번지에 소재한 문화유적이다. 지표 조사 결과 국사봉(245m) 상봉에서 석축의 흔적과 함께 흩어진 돌무더기가 산재해 있음이 관측되었다. 또한 석축 내부에서는 기와편·청자편·토기편을 비롯, 동전과 흙으로 구운 짐승의 머리와 다리 등이 수습되었다. 이를 근거로 관련 학계에서는 백제시대 군사시설과 관련된 관방유적으로 추정하는 바 있다. 그러면 기존에 언급된 국사봉 유적의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이 유적의 성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자.

### ① 국사봉 산성

백제시대. 무수동과 사정동의 경계를 이룬 250m 정상에 있다. 국사봉산성에서 북쪽으로 사정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보(堡)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성 주위는 약 50m로서 거의 붕괴된 상태이며, 20m 정도 석축이 남아 있고 높이는 1m 정도이다. 또한 동쪽 측면에는 약 150m 가량 되는 흙으로 쌓은 석축이 있는데, 아마도 돌과 흙을 섞어서 만든 혼합형으로 볼 수 있다. 장대지나 문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sup>2)</sup>

### ② 국사봉 보루

백제시대(?). 안동권씨 집성촌으로 유명한 무수동 뒷산에 위치한 해발 240m 되는 국사봉 정상에 축조되어 있다. 이 유적은 산 정상에 6mx8m 가량 되는 장방형의 석루(石壘)인데, 서남쪽으로 약 2km 떨어져 있는 사정성과 서로 대치하고 있고 또한 주변 경계가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유적이 일반적인 산성의 형태와는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사정성의 주변에 설치된 보루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sup>3)</sup>

### ③ 국사봉 보루

삼국시대. 산 정상부에 남아 있는 석축과 함께 흩어진 돌무더기의 유적이 있다. 동서로 긴 타원형의 능성을 따라 축조된 석축은 대부분 허물어진 상태이지만 북쪽 부분에 길이 3m, 높이 1m의 5단 가량 석축이 남아 있다. 석축의 돌 틈에서 토막 난 토우를 비롯하여 자기조각과 상평통보가 발견되었다.<sup>4)</sup>

2) 대전직할시사편찬위원회, 『대전시사』제4권, 1992, 95~96쪽.

3) 대전직할시, 『문화유적총람』, 1992, 139~149쪽; 대전직할시, 『대전의 성곽』, 1993, 304~305쪽.

4) 대전광역시, 『문화유적분포지도』, 2004, 200~201쪽.



〈사진 1〉 무수동 국사봉



〈사진 2〉 국사봉 유적(대전 문화재자료 제38호)

위의 자료에서는 한결같이 국사봉 유적을 백제시대 또는 삼국시대 사정성과 연계된 소규모의 산성이나 보루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1995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시 문화재자료 제38호로 지정되었다. 최근 발간된 『대전광역시 문화재대관』에서는 국사봉 유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유적은 산봉우리 둘레를 동서 방향으로 8m, 남북 방향 5m 정도의 타원형 부분 가장자리를 석축한 형태로서 석축의 둘레는 약 25m이다. (중략) 석축 내부 및 주변에서 고려시대 이후로 판단되는 기와편, 그리고 대략 11세기 이후로 추정되는 청자편 등이 관찰된다. 그 밖에도 토기편 및 짐승의 다리 모양 토제품 등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토제품은 산성과 같은 관방에서 발견되는 예가 많아 이 유적을 군사적 성격의 보루로 볼 수 있게 한다.

주변 지세나 산성의 분포로 보면 백제가 대전 분지로 진출할 무렵에 처음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인근의 사정성에서는 백제 사비기 이전으로 올려볼 수 있는 토기편이 확인되므로 그와 동시에 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성은 백제토기의 연대로 보면 대략 5세기 말~6세기 전반경 어느 무렵으로 비정된다. 기와편이나 청자 등의 유물로 보면 고려시대에도 쓰였을 것이다. 지금 남아 있는 석축의 기법은 삼국시대와는 다르므로 후대에 다시 고쳐 쌓은 것으로 보인다.<sup>5)</sup>

즉 국사봉 유적은 군사적 성격의 보루이며, 인근에 분포한 산성과 토기의 연대로 미루어볼 때 백제가 대전 분지로 진출할 무렵에 처음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첩첩산중에 위치한 국사봉의 입지와 출토유물의 성격을 재검토하면, 백제 때 군사적인 목적으로 축조되었다는 고고학계의 추론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것은 석축의 기법이 삼국시대의 산성과는 전혀 다를 뿐 아니라 그 규모도 지나치게 작다는 점이다. 더욱이 석축의 내부에서 수습된 유물은 11세기 이후의 청자편이나 와편·자기편, 그리고 부서진 토제마와 상평통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종래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유적의 성격이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을 갖고 필자는 현지 사정에 밝은 무수동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국사봉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국사봉 정상을 중심으로 둘레 25~30m의 석축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형태는 타원형 또는 장방형으로 쌓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유적의 주변은 등산객들의 빈번한 왕래로 인해 원형이 거의 훼손된 상태였다. 또 일부 석재는 서낭당처럼 돌탑을 쌓아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치성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컨대 국사봉 유적은 그 규모와 축조기법, 출토 유물로 판단할 때 삼국시대의 군사시설이 아니라 그 정상부에 건립되었던 제당(祭堂) 터와 담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국사봉 유적을 제사시설로 간주하는 유물은 기 수습된 토제마와 상평통보가 묵묵히 뒷받침해준다. 필자 또한 조사과정에서 토제마의 안장으로 추정되는 파편과 다

5) 박순발, 「국사봉유적」, 『대전광역시 문화재대관』, 대전광역시, 2019, 654쪽.



양한 자기조각 및 기와편을 수습하였다. 유물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불에 탄 흔적의 와편인데, 이는 국사봉 정상에 건물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유력한 단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물의 실체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수습된 유물과 마을에서 전하는 지명유래를 종합해 볼 때 국사봉 유적은 천신신앙의 잔영<sup>6)</sup>인 국사당(國師堂)이고, 제당 내부에는 신물(神物)로 바친 토제마가 안치되어 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불에 탄 와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무수동 국사당은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구전에 따르면 국사봉은 옛날에 ‘국사’라는 도승이 이 봉우리에 올라가서 사방의 지세를 내려다보니 형국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춘 자리라고 한다. 때문에 그 산을 국사봉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사봉이란 지명은 ‘국사(國師)가 좌정하여 국사(國事)를 논했다’는 등의 전설이 깃들여 있으며, 민간에서는 명산으로 인식되어 고을이나 마을의 주산으로 치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국사봉을 끼고 있는 마을에서는 오래 산 정상에 ‘국사당’을 짓거나 단을 쌓아 쇠말[鐵馬]이나 토제마·목마(木馬) 등을 안치하고 국사제(國師祭) 또는 산신제(山神祭)를 지냈다.<sup>7)</sup> 실제 무수동에서도 국사봉을 신성시하는 관념은 1950년대까지 주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지난날 혹독한 가뭄이 닥치면 국사봉으로 올라가 그 상봉에 땔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피우며 천신께 비를 청하는 기우제<sup>8)</sup>를 지냈다고 한다.<sup>9)</sup>

### 3. 국사봉 토제마의 실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사봉 유적은 백제시대의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신앙과 관련된 제사의 공간으로 조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보다 ‘국사봉’으로 불리는 지명과 함께 석축 내부에서 수습된 동물상과 엽전이다. 2008년 이 유물이 보관된 대전향토사료관(현 대전시립박물관)의 협조를 얻어 살펴본 결과 동물상은 토제마로서 모두 다섯 마리이고, 본디 모습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각각의 마상(馬像)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3, 135~140쪽.

7) 충청지역의 국사당에서 쇠말·토제마·목마 등을 봉안한 사례는 『여지도서』에 기록된 계룡산 국사봉 국사당, 『동국세시기』에 등장하는 청안(현 괴산군 청안면)의 국사당(필자 현지조사), 안면도 우포마을 국수당, 서산 부석면 창리 국수당 등 40여 곳에서 확인하였다.

8) 국사봉과 함께 무수동에서 기우제를 지낸 장소는 운암산 밑에 위치한 속칭 ‘용구덩이’이다. 이곳에는 커다란 웅덩이가 있는데 옛날에 이 못에 살던 용이 승천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날이 가물면 마을의 남녀노소가 용구덩이로 가서 땔나무 수십 짝을 쌓아놓고 기우제[무제]를 지낸 다음 불을 질렀다. 바야흐로 화기가 충천하면 물을 퍼서 나무더미에 붓는데, 이것은 용이 불을 끄기 위해 비를 내리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때 부녀자들은 저마다 가져온 키로 용구덩이의 물을 떠서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물을 까불렀다.

9) 무수동 권영원(남, 84세), 권달원(남, 84세) 옹의 증언이다.(2008년 7월 필자 현지조사)

① 토제마 1 : 5기의 토제마 가운데 가장 크고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몸통의 절반 정도가 떨어져 나가 상태지만 목덜미 위의 갈기와 안장 등이 선명하게 묘사되었다. 토제마의 표면은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머리를 포함한 크기는 약 6~7cm이다. 따라서 처음 제작 당시에는 15cm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 토제마는 회백색 점토로 말의 형상을 만들어서 구운 것인데, 입을 벌린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달리는 말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② 토제마 2 : 회갈색을 띠고 있으며 크기는 6~7cm이다. 네 다리와 꼬리, 주둥이가 파손되었지만, 동물상이 말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안장을 지어올린 흔적이 있으나 유실된 상태이다. 토제마 1에 비해 매우 조잡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③ 기타 토제마 : 말머리 3두와 부서진 다리 4개이다. 이 중에서 1기는 백색 점토로 빚은 것인데 다른 말에 비해 마두(馬頭)가 유난히 크고 목이 굵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크게 제작되었다. 나머지 2기의 마두는 회색을 띠고 있으며 입과 점토를 붙이는 방식으로 묘사한 눈이 또렷하다. 그런가하면 토제 다리 4개 가운데 백색을 띤 2기는 백색 마두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회색 다리 2기는 토제마 1·2 또는 회색 마두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4개의 다리는 각각 3cm 내외이다.







〈사진 3〉 국사봉 유적 출토 토제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기의 토제마는 크기와 형태, 색상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제마의 용도는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국사당에 바친 말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추측컨대 5기의 토제마는 국사신(國師神)이 타고 다니는 신승물(神乘物)이나 동서남북 및 중앙의 재액을 물리치는 오방토제마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토제마와 함께 출토된 청자 및 자기편은 국사제를 지낼 때 사용되었던 제기이고, 상평통보는 토제마의 공물로 헌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마신앙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유물로 보인다. 즉 지난날 철마나 토제마 등을 모신 마을에서는 동제를 지내면서 엽전이나 동전을 바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습속의 일단을 국사봉 토제마와 상평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4. 마신앙의 전통과 국사봉 토제마의 성격

무수동 국사봉 유적과 비견되는 사례는 계룡산 국사봉 국사당에 봉안된 철마(鐵馬)에서 엿볼 수 있다. 18세기 중엽의 관찬지리지인 『여지도서』에는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안치한 국사봉 철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현의 동쪽 10리에 국사봉이 있으니 곧 계룡산의 서쪽 기슭이다. 그 상봉에 철마 세 마리가 있는데 언제 만들어 놓았는지 때를 알 수가 없다. 혹 사람들이 옮겨서 돌려놓

으면 갑자기 비바람이 일어난다.<sup>10)</sup>

고 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국사봉 상봉에 철마가 봉안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에서는 철마의 머리가 마을을 향하면 재앙이 닥친다는 속설이 전한다. 그래서 국사봉을 경계로 하는 마을에서는 서로 상대마을로 머리를 돌려놓느라 실랑이를 벌이곤 했다. 가령 동구 삼괴동 공주말에는 옥천군 군서면, 금산군 추부면과 경계를 이루는 국수봉[국사봉]이 있다. 예전에 국사봉 상봉의 바위 밑에는 유래를 알 수 없는 철마 3필이 놓여있었다. 그런데 철마의 머리가 마을 쪽을 향하면 범이 내려와서 가축을 물어가거나 재앙이 온다는 속설에 따라 이를 몹시 꺼려했고, 서로 상대마을과 머리를 돌려놓느라 종종 시비가 벌어지곤 했다.<sup>11)</sup> 또한 유성구 덕진동 적오산성 정상부에 ‘말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다. 그 밑에 무쇠로 만든 말 다섯 마리가 놓여있었는데, 말의 머리를 둔 쪽으로 호랑이가 내려와서 개를 물어갔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덕진동과 그 맞은편에 위치한 방고개 주민들이 몰래 상대방으로 쇠말의 머리를 돌려놓느라 잦은 실랑이를 벌였다고 한다.<sup>12)</sup>

계룡산 국사봉 철마와 국사당의 존재는 19세기 공주의 한 유생이 쓴 「국사봉기」에 비교적 상세한 내력이 실려 있다.

국사신(國師神)은 마호(馬湖)<sup>13)</sup>의 모든 사람들이 높이 받든다. 해마다 정월 보름 아침이 아니면 2월 초순에 풍물을 치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소리가 멀리에서도 대단하다. 내가 7~8세 때 정월 보름 아침에 그 풍장소리를 들으려고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바라보았다. 푸른 연기가 하늘에 솟구치고 불의 밝기가 별빛 같은데 뛰고 춤을 추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번 올라가보고 싶었으나 뜻대로 못하고 지내오다가 그 후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술을 가지고 상봉에 올라왔다. 봉우리의 누석이 모두 신비하게 새겨져서 귀신의 숨씨 같았다. 그 사이에는 세 마리의 말이 놓여있는데 서쪽에 으름가는 철마 한 필과 낡은 철마 두 필이 서쪽 절벽에 엮드려 있었다. 바위가 겹겹이 쌓인 언덕에 풀이 우거져 뒤엉켜 있는데 달리 주인이 없는 듯하였다. (중략) 서재(書齋)의 집터에서 수십 보 오르니 그 신을 제사하는 장소가 있다. 이름하여 국사당인데 당은 돌을 쌓고 말을 올려놓은 것이다.<sup>14)</sup>

10) 國師峰 在縣東十里 卽鷄龍山西麓也 其上有三鐵馬 不知何時所作 而人或動移 則風雨忽作云(『輿地圖書』 尼山縣 山川條).

11) 강성복, 「삼괴동, 세 그루의 괴목이 좌정한 회덕과 공주의 옛 터전」, 『대전문화』제21호,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2, 321~322쪽.

12)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자운대 복지시설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2, 17쪽.

13) 국사봉이 위치한 논산시 상월면 일대 또는 계룡시 주변마을로 추정되나 현재의 지명은 확인하기 어렵다.

14) 國師之神 馬湖諸人崇奉之 每歲非上元朝則仲春朔 擊樂器以享之 其聲甚遠 余在七八歲時 早起於上元之朝而聽其樂 開戶望之 蒼烟插天 火明如星 蹲蹲舞容歷歷 可欲願一 登臨而未由也 其後與諸益携酒而上峰 嶺累石 皆神鏤而鬼劃也 立三馬於其間 而西其首鐵馬一泥馬二 俯西絕壁 層崖叢薄雜然 別無主者 (中略) 自上書齋遺墟進數十步 有享神之所 名之曰國師之神 而堂則累石立馬者是也(『國師峰記』, 고 권영원 선생 소장 필사본).

위의 자료는 계룡산 국사봉에 철마 세 마리가 놓여있다는 『여지도서』의 기록을 뒷받침한다. 또한 상봉에서 수십 보 떨어진 곳에 돌을 쌓고 철마를 안치한 국사당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매년 정월 대보름이나 2월 초에 풍물을 치면서 국사당에 올라 제를 지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사당에 안치된 철마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치성을 받아 동제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난날 국사당이나 산신당에 말을 봉안하고 동제를 지내는 사례는 충청도 전역에서 두루 산견되고 있다.

국사봉 유적이 마을신앙의 성소(聖所)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는 누누이 언급한 바와 같이 토제마와 함께 출토된 상평통보이다. 기실 엽전이나 동전은 민간 신앙과 관련된 종교적 의례에 바치는 주요한 공물(供物)의 하나이다. 특히 지난날 말[馬]을 봉안한 국사당·산신당·서낭당에 치성을 드릴 때에는 으레 동전을 바치는 것이 관례였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서낭님의 말로 철마가 놓여있던 예산군 대술면 이터리에서는 새마을사업 시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서낭당을 철거하였는데 조선시대의 엽전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sup>15)</sup> 이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주민들이 서낭당에 치성을 드릴 때 철마에 헌납한 것이었다. 또한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산제당에는 지금도 철마가 안치되어 있는데, 산신제를 지낼 때 산신령 말의 노젓돈으로 동전을 바치는 풍습이 있다.<sup>16)</sup>

15) 마을 입구 길옆에 서낭당이 위치한다. 서낭목은 소태나무이고 그 밑에 잡석의 돌무더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새마을사업 때 도로를 확장하려고 가래질을 하던 도중에 조선시대의 엽전과 손바닥만 한 쇠말(鐵馬)이 출토되었다. 이를 누군가 가져갔는데 그해 소를 먹이는 집은 모조리 해를 보았다고 한다. 송아지를 낳으면 까닭 없이 죽는가 하면, 임신한 소는 낙태가 되어 아예 새끼를 낳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마을에서는 술잔이라도 붓고 서낭을 헐어냈어야 하는데 그냥 건드렸기 때문에 해를 보았다는 속설이 전한다. 예전에 정월이 되면 서낭을 위하는 집에서는 부녀자들이 서낭나무에 오색천과 흰새끼를 걸고 서낭제를 지냈다. 이때 서낭당의 말에 엽전을 바쳤다고 한다(2009년 5월 6일 현지조사. 우순영(여, 1923년생) 제보).

16) 충남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자진뱅이 마을 뒷산에는 네 마리의 쇠말(鐵馬)이 있다. 산제목으로 치성을 받는 해목은 소나무 아래의 바위틈에 안치되었는데, 산신이 타고 다니는 말이라 하여 ‘산신령 말’로 인식된다. 쇠말은 길이 8~10cm, 둘레 7~12cm 가량 되는 크기이며, 머리가 없고 몸통과 다리만 갖춘 매우 조잡한 형태이다. 게다가 쇠말의 다리는 모두 1~2개씩 부러져 있어 성한 것이 없는데, 호랑이와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 잃은 것으로 전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산제당 동쪽 외에, 남·북·서쪽 산정에도 각각 쇠말을 봉안하여 동네를 수호하는 신령으로 삼았다고 한다. 또 쇠말을 가져가면 호랑이가 내려와서 그 집의 개를 물어간다고 하여 주변에는 얼씬도 않는 것이 관례이며, 일제 강점기에는 부산에 사는 사람이 쇠말을 훔쳐갔다가 동티가 나서 장님이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현재 쇠말 앞에는 동전 20여 개와 술잔이 놓여있으며, 매년 음력 정월 초이튿날 저녁에 제관이 산신제를 지낼 때 쇠말에 헌작·재배한다(강성복, 『금산의 탐신앙』, 금산문화원, 1999, 420~421쪽).





〈사진 4〉 금산 산안리 철마



〈사진 5〉 철마에 바친 엽전

이와 같이 말을 모신 신당에 엽전이나 동전 따위를 바치는 습속은 마신앙과 관련된 오랜 전통이다. 때문에 길손들이 쇠말[鐵馬]·사기마(砂器馬)·목마(木馬) 등을 모신 제당을 지나갈 때는 여행의 안전을 기원하는 속신으로 동전을 놓고 가는 풍습이 내려왔다.<sup>17)</sup> 앞에서 언급한 5필의 철마가 안치되어 있던 유성 덕진동 적오산성 ‘말바위’는 예

17)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자운대 복지시설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2, 17쪽.

전에 평소 주변마을 사람들이 말바위 앞을 지나가려면 엽전이나 동전을 놓고 갔으며, 만일 엽전이 없으면 쇠불이라도 던지고 가야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전한다.

요컨대 국사봉 유적에서 출토된 상평통보의 용도는 국사당에 봉안한 토제마에 폐백의 의미로 바친 엽전이었다. 무수동의 국사당이 언제 폐기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상평통보로 미루어보아 18세기<sup>18)</sup>까지 제당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높다. 불에 탄 와편(瓦片)은 조선후기 어느 시점에 국사당이 화재로 소실되었음을 방증한다.

---

18) 상평통보는 1633년(인조 11) 김개국(金龜國)·김욱(金旭)의 등의 건의로 주조되었으나 결과가 나빠 유통을 중지했다. 그 후 1678년(숙종 4)정월에 영의정 허적(許積), 좌의정 권대운(權大運) 등의 주장에 따라 다시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서울과 서북 일부에 유통시켰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여 조선 말기까지 통용된 화폐이다.

# 04

## 대전시 무형문화재 예능종목의 전승 현황과 문제점

최혜진(목원대학교)



# 대전시 무형문화재 예능종목의 전승 현황과 문제점

최 혜 진(목원대학교)

## 1. 대전시 무형문화재의 개요와 예능종목

대전시는 현재 무형문화재 제24호까지 지정되어 있다. 무형문화재는 그간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등은 예능종목으로, 공예기술이나 음식 등은 기능 종목으로 구분지어<sup>19)</sup> 왔다. 하지만 2016년 무형문화재법이 제정, 정비되면서 무형문화재는 다음의 기준을 갖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이러한 분류는 예능, 기능, 지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전통적 공연·예술과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을 ‘예능’종목으로 볼 수 있다. 예능종목은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를 지정하고 무형문화재의 예능을 전형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유자로 뽑는다. 또한 농악이나 탈춤처럼 개인이 단독으로 실현할 수 없을 때에는 보유단체를 지정한다. 한편 무형문화재의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 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19) 서한범, 「무형문화재의 명칭 및 미지정 종목의 검토와 보존을 위한 박물관의 역할」, 『한국민속학』40, 한국민속학회, 2004, 256쪽.(253-291)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리랑처럼 종목만 인정하고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대전시는 현재 예능종목으로 ‘웃다리농악’ ‘앉은굿’ ‘유천동산신제’ ‘장동산디마을탐제’ ‘매사냥’ ‘들말두레소리’ ‘가곡’ ‘승무’ ‘판소리고법’ ‘무수동산신제’ ‘살풀이춤’ ‘입춤’ ‘판소리춘향가’ ‘대전향제줄풍류’를 지정하고 있다. 예능종목은 보통 예술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리 전통문화라 할 수 있고, 실용적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실용적인 문화를 일컫는다. 대전시 무형문화재 예능종목은 대전시의 전통예술에 대한 수준이나 전승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대전시 무형문화재 중 예능종목인 14개 무형문화재 중 특히 음악이나 춤과 관련된 9개 종목에 대한 전승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타의 종목은 매사냥이나 의례 의식으로, 예술적 발전을 살펴보기 보다는 공동체문화의 관습과 더 연관되어 있어서 같이 묶어 다루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무형문화재 예능종목 중 음악과 춤에 대한 전승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 2. 대전시 무형문화재 예능종목의 전승 현황

### 1) 제1호 웃다리농악

대전 웃다리농악은 1989년 3월 18일 대전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웃다리농악은 경기, 충청지역의 농악을 가리키는 말로 송순갑(1912~2001) 명인에 의해 발전, 전승되었다. 송순갑 명인은 1912년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출생으로 5세 무렵부터 부여 은산별신제에 무동, 꽃나비 등으로 참여하며 재주를 익혔고, 7세 때는 최태식 걸립패에서 무동과 소고로 활약하였다. 8세 무렵에는 이우문 솟대패에서 무동, 소고, 살판 등을 익혔고, 11세 무렵 김승서패에서 소고, 살판, 쌍줄타기, 열두발 상모 등을 익혔다. 20세 무렵에는 박옥현 험물사, 남사당에서 활동했으며 21세에는 최군선 낭걸립패에서 활동하면서 장구, 소고, 살판, 5무동, 열두발, 마술, 차력술, 6마당 악사를 두루 감당하였다. 33세에 웃다리농악 걸립패 꼭두쇠로 활동하면서 송순갑 행중을 이끌게 된다. 이후 1960년 48세에 대전중앙농악회를 창단하면서 웃다리농악 초대 상쇠를 맡게 되었다. 이후 송순갑 명인은 남사당놀이보존회 활동을 하다가 72세에 충남 지방문화재 제5호 ‘충청웃다리 칠채가락’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이후 그의 주소지인 법동이 대전시로 편입되면서 1989년 77세에 대전무형문화재 제1호 ‘웃다리농악’ 예능보유자로 인증받게 된다.

충청웃다리농악의 발상지는 청양군 소재의 까치내로 보고 있는데, 송순갑 명인은 7세 때 까치내에서 걸립을 시작하였는데, 송순갑 명인이 안성, 평택 농악과 달리 오른삼모, 오른발을 사용하므로 이를 충청웃다리농악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

송순갑 명인은 청양 까치내를 근거지로 활동하다가 이후 대전시 법동에 정착하였다. 정착할 당시 지명이 충남 대덕군 회덕면 법동리였기 때문에 충남에서 먼저 예능보유자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회덕면에는 남사당패 사람들이 많이 기거하였다고 하는데, 낮에는 농사를 짓다가 저녁이 되면 기능을 익혔다고 한다. 이들은 명석이나 삼모, 악기와 채 등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였다. 이 때 함께 있던 남사당의 꼭두쇠 남운용과 박계순, 양도일, 송복산, 이돌천, 김재원, 김용래, 정연민, 강천희 등과 이원복, 최성구 등이 모두 송순갑 명인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1950년 처가가 있는 대전에 정착한 이래 경기, 충청 호남 지역 등에서 초빙을 받아 '걸립패'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1960년대 들어 '중앙농악회'를 결성하면서 '대전웃다리농악'의 기틀을 세웠다.

웃다리농악을 전승하던 '중앙농악회'는 1997년 대전농악보존회로 개편되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단체는 이후 '대전 웃다리농악보존회'로 개칭하였는데, 2002년 12월 30일 대전시지정무형문화재 '웃다리농악'의 보유단체로 지정을 받았다. 송순갑 명인의 아들 송덕수 명인이 판제를 물려받고 류창렬 명인이 소고와 무동으로 활약하면서, 송순갑 명인 작고후 류창렬 명인은 2004년 4월 30일에, 송덕수 명인은 2007년 3월 23일에 예능보유자로 인정을 받았다.

현재 예능보유자 송덕수 명인은 故 송덕수 명인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농악을 익혔으며,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풍물공연 연출, 세계풍물지도자상, 한국예술총연합회 예술인상, 대전광역시장 감사패 등을 수상하였다. 2018년 한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한 유성생명과학고 풍물부 지도 및 연출을 맡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대전웃다리농악보존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전웃다리농악의 보존과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보유자 송덕수(1960년생), 류창렬(1952년생) 명인을 중심으로 김병곤(1967년생), 복성수(1966년생)가 전수조교로 지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쇠에 김병곤, 소고춤에 복성수가 활약하면서 다수의 공연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수자는 김행덕을 비롯한 20여 명이며, 전수장학생 5명, 전수자 40여 명이 있다. 현재 대전웃다리농악보존회에서는 무형문화전수학교 운영, 웃다리농악 공연 및 체험, 하계전수마당 등을 운영하면서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 2) 제13호 들말두레소리

현재의 목상동의 옛 지명은 문평동이다. 문평(文坪) 마을은 갑천과 금강의 합류지점으로 평야지대이지만 자연재해가 자주 발행한 지역이다. 지리적으로는 연기, 청원, 회덕, 유성 등이 이어져 있고 대전 북부지역 경제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특히 문평은 넓은 들이 있어 예로부터 먼벌, 들말로 불리었고, 백제시대에는 우술군, 신라시대에는 비평군, 고려시대에는 회덕현에 속해 있다가 조선시대에는 회덕면 근북면 평촌으로 불리다가 일제 강점기에는 대덕군 문평리, 1973년에는 대덕군 신탄진읍 문평리로, 1989년에는 대전광역시로 편입되어 대덕구 목상동 관내 문평동이 되었다. 현재는 유래를 따져 목상동 들말로 불리우고 있다.

문평마을 들말은 금강과 갑천을 안고 있어 홍수 시 마을이 범람하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강에서 나룻배로 사용하고 수해발생시 피난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100명 이상 탈 수 있는 비상구난용 배를 가지고 있었다. 수해가 나면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마을 앞뜰과 뒤뜰에 토산을 높이 쌓고 그 위에 큰 건물을 지어 수해 때 가재 도구 곡식 등을 운반하여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음력 10월 상달에 길일을 택하여 안녕을 기원하는 토산제를 지냈다.

이 마을에서는 농사를 시작하며 동네의 안녕과 풍요를 빌고 한마음으로 일하며 자연스럽게 두레문화를 형성해왔다. 이러한 문화는 동제로 정성을 모으고 농사를 함께 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들말 두레로 정착되었다. 들말 두레는 들말, 아랫남해, 윗남해, 을미기지, 수도랫말의 마을이 모여 구성되었다. 현재 이 지역은 산업화의 물결 속에 제3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마을주민들이 목상동이나 인근 덕암동 등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들말두레보존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두레소리를 전승하고 있다.

대전시의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과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을 계기로 들말두레의 본격적인 복원과 연행의 과정이 구성되었다. 이후로 들말두레는 단합 속에서 예전의 전통을 이어왔고, 이를 인정받아 2002년 대전시무형문화재 제 13호로 지정이 되었다. 당시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고석근(1929.6.27.생~2015.11.11.몰)은 대대로 대전 지역에 살면서 소리를 전승했다. 들말에서는 1973년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1974년부터 기계농사가 시작되어 소리가 점차 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문평사람들을 중심으로 “들말두레놀이”를 만들어 대통령상을 탄 이후로 두레소리를 전승하였다.

이후 들말두레보존회가 결성되고, 2000년 들말두레전수회관이 건립되었다. 현재는 고석근 보유자가 타계하여 전수조교인 문병주(1957년생)씨가 두레소리 전과정을 담당하고 교육하고 있다. 들말두레보존회의 제1대 회장은 박노원, 2대 회장은 고석근이었으며, 현재 제3대 회장을 심원생(1947년생) 선생이 맡고 있다. 현재까지 이수자는 6명이며, 전수장학생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준회원은 40~50명으로 대전시민들이 고루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학교 등을 다니며 공연을 많이 했고 행사도 연간 5회 정도였다고 한다. 농사환경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전수생도 적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 전수조교 문병주 선생이 소리지도를 맡고 있고, 장구지도는 김기옥 선생이 맡아 하고 있다. 보존회 회원으로는 회장 심원생, 부회장 이상구, 총무 김기옥, 김정숙, 감사 김순태, 오갑균 등을 비롯해 문병주, 한영부, 박기오, 이흥구, 정일범, 강순덕, 이영숙, 이기옥, 김미영, 허봉순, 박경숙, 황애화 등이 활동하고 있다.

### 3) 제14호 가곡(여창가곡)

한자이 명창은 1954년 9월 4일(음) 경북 영천에서 부친 한광석과 모친 김기순 사이의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부친은 전문적인 가객은 아니었으나, 마을에서 노래패로도 활동했고 장구도 잘 쳤다고 한다. 한자이 명창은 어린 시절 집 근처 포교당 절에서 예불소리를 듣고 따라하면서 소리에 빠져들었으며, 한 때 불가에 입문을 할 정도로 심취하였다. 1985년 즈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당시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 김월하 선생의 소리를 듣고 정가에 심취하였다. 그래서 경북대 국악과 교수이면서 가곡 예능보유자였던 김경배 선생을 먼저 찾아가 ‘춘면곡’ ‘상사별곡’ 등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1988년에는 전국시조경창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본격적으로 월하 김덕순 선생 문하에서 시조, 가곡, 가사를 배우기 시작했다. 김경배 선생에게도 꾸준히 남창가곡과 12가사를 전수받았다. 1992년 김경배 선생께 입문한 이후 가사, 가곡 등을 사사했고, 무형문화재 지정 후에도 2015년까지 배움을 이어갔다. 20세기 최고의 가곡 명창들에게 전수를 받은 한자이는 더 나아가 1991년 당시 시립연정국악원에 있던 조남홍, 김규열, 박기옥 선생에게 석암제, 완제 등 향제 시조를 2년 정도 전수받기도 하였다. 내포제 시조의 무형문화재로 활동한 부여의 소동규 선생에게도 시조를 배웠다. 스승 김월하는 향제 시조를 안했지만 연합시우회 회장으로 시조대회를 통해 전국 시우들과 교류하고 있어서 시조하는 먼 친척 어른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조를 학습하여 결국 1993년에는 전주대사습놀이 시조부 장원을 하였다. 김월하 선생 문하에서도 꾸준히 수련을 거듭하여 1994년 가곡 이수자가 된 후에도 스승의 유고시까지 쉬지 않고 학습하였다.

1985년부터 남편의 직장을 따라 대전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 이래 ‘한자이정가연구원’을 운영하며 대전지역의 정가 보급에도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기량과 노력을 인정받아 2002년 12월 30일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14호 가곡(여창가곡)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한자이 명창은 이후 2007년 KBS 국악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간 정가발표회 24회, 문하생 발표회 20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에도 한자이 명창은 정기공연 활동과 전수 교육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수교육조교로는 김재락(대전시립연정국악원 단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수자로 장동재, 김봉기, 오인세, 박준영, 조재석, 박봉금, 조영숙, 윤미애, 장순희, 염옥순, 노연정, 김춘교, 송영숙, 임이랑, 김영미, 김나혜, 이아름 등이 있다.

#### 4) 제15호 승무

‘승무(僧舞)’는 불교의식에서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춤으로, 다채로운 춤 가락의 구성, 음악과 장단의 변화, 장삼 소매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춤사위 등 예술성이 풍부하다. 또한, 엄숙하고 고요하면서도 내면적(內面的)인 흥과 멋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품위 있고 격을 갖춘 춤으로 알려져 있다.

무형문화재 승무의 예능보유자인 송재섭은 10대 무렵부터 민속무용에 뜻을 두고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20대 후반 불가에 입문한 후 조계종 스님으로부터 작법과 범패를,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재 보유자인 박송암 스님에게서 바라춤, 법고무 등 불교의식과 의식무를 사사했다. 이후 이매방으로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와 살풀이춤, 영산재보존회로부터 영산재를 각각 이수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04년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보유자가 되었다.

고 이매방 선생은 ‘승무’와 ‘살풀이춤’에서 ‘이매방류’라는 독자적인 유파를 형성할 정도로 제자의 양성과 전승활동에 힘써온 인물이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당시 광대 출신이었던 고(故) 이대조, 고(故) 박영구 등으로부터 승무를 사사하여 춤 분야에 입문하였으며,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승활동을 펼쳐왔다. 송재섭은 이매방류 춤을 배우고 이를 대전지역에서 전승, 교육하고 있다.

송재섭의 승무는 부드럽고 섬세하면서도 큰 품격이 있다. 그는 “오랜 시간 춤을 연구하다보니, 춤 속에도 도가 있고 춤과 수행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며 “승무에 담긴 민족의 혼과 정신을 많은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하였다. 승무의 구성에 대해 “도입부에서는 인간 삶의 고뇌가 펼쳐지고, 전개부에서는 인간이 고뇌를 헤쳐나가는 열정이 표현되며, 마지막에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희열이 춤사위로 표현된다”고 설명하였다. 송재섭의 승무는 절제된 감정과 내면으로부터 해탈의 경지를 춤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구도의 세계에서 오는 겸허한 몸짓이 체화되어 있다고 할 만하다.

송재섭은 현재 대전시 구도동 조계종 현불사 주지이면서 사)우리전통문화예술진흥회 이사장으로 승무를 계승, 전파하고 있다. 전수조교로 최석권이 활동하고 있다.

## 5) 제17호 판소리 고법

대전 충청지역은 시나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판소리 명창들이 많이 났다. 수많은 명창들이 중고계 판소리로 명성을 날렸으나 지금 충청지역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거의 끊어졌다. 오히려 도시화, 산업화로 국악불모지의 불명예만 남은 대전에서 오랜 시간 터를 잡고 고법을 전승하고 있는 명인들이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박근영 보유자는 1959년생으로 대전시 중구 은행동을 본적으로 하고 있다. 박근영 보유자의 고법은 부친 박오용으로부터 전수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박오용의 부친은 전남 영광에서 면장을 지낸 분으로 양조장을 하면서 당시 많은 식객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한다. 식객들 중에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한다. 박근영 명고의 조부께서는 식객들이 소리를 하면 북을 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부친 박오용은 소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박오용(1926~1991)은 전남 영광군 백수면 홍곡리에서 태어났다. 박오용은 19세 때 전남 영광에서 최광렬에게 호남가 등을 배웠다고 한다. 최광렬은 전북 고창사람으로 판소리를 하였다고 한다. 박오용은 19세 때 광주로 가서 박학주가 경영하던 전남 국악원에서 박학주에게 춘향가 쑥대머리를 배웠다. 33세 때 광주에 있던 광주 국악원에서 정광수에게 춘향가 옥중상봉과 초경이경을 배웠다고 한다. 25세 때에는 광주에서 오천수에게 춘향가 초앞에서 그네 뛰는 데까지 배웠다. 오천수는 일명 오병수라 하는데 은희진 명창의 의부라 한다.

박오용은 20세 때 광주에서 박학주에게 판소리 장단 치는 법을 배웠고 23세 때 광주에서 2년간 김명환에게 판소리 고법을 배웠다고 한다. 박오용은 일산 김명환의 북을 배우기 위해 학채를 많이 지불하였고 그만큼 집중적으로 더 배울 수 있었다. 그 뒤 박오용은 광주에서 판소리 고수로 계속 활동하다가 32세 때부터 전남 장흥에서 활동하였고, 36세에 다시 광주에서 활동하였으며 42,3세 때 대전에 와서 활동하다가 49,50세 쯤에 전북 군산에 머물면서 활동을 하였다. 이후 57,8세 이후로 대전에서 고수 활동을 하며 제자를 기르다 1991년 타계하였다.

박오용의 고법은 김명환제를 기본으로 하여 스스로 제를 개발한 것이며, 1985년 즈음 자신만의 북가락을 짰다고 한다. 박오용은 북의 왼편 가죽을 궁편, 오른편 가죽을 채편, 통의 꼭대기 가운데를 구레, 통의 조금 앞쪽 오른편을 매아점이라 하고, 중모리 12박에 한 장단을 달아서 24박으로 맺어주는 것을 소삼대삼이라 일컫는다.

박오용은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특히 박동진 명창과 활동을 많이 하였고 한 때는 박록주 명창의 지정 고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조통달, 최난수 등 명창들의 고수 역할을 많이 하였다. 박오용의 북이 유명해지자 전국에서 고법을 배우기 위해 대전으로 몰려 온 제자들로 한 때는 제자들의 수가 400여 명에 이르기도 했다.

그 때 배운 제자들로 박현우, 허봉수, 신미숙 등이 있다. 박오용은 일찍이 제자를 가르치면서 여성 제자들도 길렀다. 여성들이 북을 잡지 않던 시절, 제대로 된 고법을 여성 제자에게도 가르친 열린 교육자였다.

박오용 명고는 송원장단연구회를 중심으로 제자들을 양성하였고 대전에 정착하여 대전에서 판소리 고수촌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장남 박근영에게 자신의 고법을 꼭 정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 음악을 알기 쉽게 글로 남기라고 하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대전을 지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모친은 친정이 있는 장흥에서 출산을 하고 바로 대전으로 돌아왔다. 박근영 명고는 부친의 반대로 뒤늦게 고수가 되었다. 국악의 시작은 한밭중학교 국악부에서 활동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국악인의 어려운 길을 가지 못하게 했던 부친의 반대로 24-5세 무렵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북을 배울 수 있었다. 공대를 나와 직장을 다니던 박근영 명고는 끈질기게 아버지를 설득했고 결국 허락을 받고 본격적인 고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뒤늦게 시작한 고수의 길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부친의 허락 후 다니던 포철을 사직하고 대전으로 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부친은 다른 제자들보다 2배의 학습비를 받았을 만큼 엄격하게 가르쳤다. 당시 6만원 정도를 부친께 학습비로 드리면서 5년 여를 쉬지않고 연습하였다. 부친은 북을 가르칠 때 주로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자신만의 고법 철학을 가지도록 유도하였다고 한다. ‘왜 그렇게 북을 쳤는지를 말해 보라’는 식이었다. 그리고 ‘가락이나 기본기는 이미 습득되었으니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당시 박근영 명고는 김동준의 북가락을 들으며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보니 그의 북에는 김동준의 스타일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후 박근영 명고는 31세 때 전북대 국악과에 들어가 졸업하고 이후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악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한국학과 박사과정까지 수료하는 등 실기는 물론 이론적으로도 많은 공부를 하였다. 그는 북을 치는 것은 물론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예능보유자인 송순섭 명창으로부터 <적벽가>를 이수하기도 하였다.

박근영 명고의 고법은 일산 김명환에게서 송원 박오용으로 전승된 것으로 그의 타법은 주로 북채 끝을 사용하며 스냅을 이용하여 친다. 북채 끝에서 팔까지의 선을 중요시 여긴다. 북을 놓고 앉은 자세는 둘째, 북을 놓고 앉은 자세는 책상다리를 하고 오른편 발바닥으로 북통의 오른쪽 밑 부분 모서리를 고이고, 왼발은 오른쪽 허벅지 밑에 넣는다. 그리고 북은 왼편 무릎 앞에 놓고 무릎을 북통 중앙에 대고 허리를 편다. 왼손 엄지손가락은 힘을 빼서 북통의 모서리에 살짝 걸치고, 나머지 손가락은 가지런히 모아 약간 손을 오므린 상태에서 북면에 닿지 않게 놓는다. 북채를 잡은 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놓는다.

박근영 명고는 소리북 산조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것은 반주악기인 소리북을 중심에



둔 독주곡이라 할 수 있다. 이 산조는 부친 박오용이 만들었던 4-5분 정도의 합북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악기와 협연과 새로운 공연 형식의 시도 등을 통해 고법이 현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박근영 명고는 우리 전통을 바탕으로 두고 새로운 창작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연과 교육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그의 제자 중에는 여성 제자들도 많은데 현대에 여자 고수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에 걸맞게 북가락도 좀더 섬세하게 다듬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박근영 고법에서 중모리의 달고 맺음의 연주법은 중모리 9번째 박인 각을 치는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각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맺는다 혹은 달아준다라고 구분하는데, 맺음장단에서 각을 칠 때는 궁손을 막고 대각자리를 힘껏 쳐서 탁하고 간결하게 연주하는 방법이고, 채로 북의 반각자리 혹은 매화점 자리를 치는 것은 달다 혹은 달아준다라고 한다. 판소리에서 북을 반주할 때 달고 맺음은 사설, 선율, 즉흥성과 현장성 등으로 구분하여 반주하고 있다. 반주법에서는 소리의 진행에 따라 변주법, 추임새, 강세, 창자의 호흡에 따른 보비위 등을 구사하며 장단을 치고 있다. 현재 박근영의 고법을 이어가고 있는 제자로 최광수·이재진·권은경·강예진·이상미, 오영기, 김기홍, 엄지연, 김진 등이 활동하고 있다.

박근영 명고는 1988년 전국고수대회 명고부 최우수상, 1992년 제12회 전국고수대회 대명고부 장원(대통령상)를 시작으로 2014년도 한빛대상, 2015년도 한국국악대상에 이르기까지 국악인으로서 많은 수상을 하였고, 목원대, 영남대, 동국대, 전북대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내었고, 현재는 사)대한민국전통문화예술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 6) 제20호 살풀이춤

지역마다 사회, 문화적 환경이 다르듯이 살풀이춤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살풀이춤은 크게 유파에 따라 한영숙(1920~1990)류와 이매방(1927~2015)류로 구분하고 김숙자류의 도살풀이춤을 따로 구분한다.

한영숙류는 제자리의 구심점이 복잡하지 않고 곱고 정갈하게 감정을 다스리며 호흡의 절제미를 보이는 담백한 춤이다. 한편 이매방류는 기교가 넘치는 춤으로 흥이 많고 몸의 꼬임이 많으며 춤의 마디마디에 멋이 흐른다. 그리고 경기도 도당굿판의 무속의 영향을 받은 김숙자류의 도살풀이춤은 어느 살풀이춤보다 긴 명주수건을 사용하여 수건과 춤추는 사람의 동작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춤 중 이매방과 김숙자는 1990년 10월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으나 김숙자는 1991년 타계하여 보유자 인정이 해제되었다.

이밖에 수건이 없이 맨손으로 추는 민살풀이춤이 있는데 조갑녀(1923~2015)의 민

살풀이춤이 유명하며 살풀이춤 중에서 가장 즉흥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살풀이춤은 많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토속적 서민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역별로 문화재로 지정되기 시작했다. 1991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화성재인청류 살풀이춤이 지정되었고, 1995년 대구 무형문화재 제9호로 권명화 살풀이춤이, 1996년 전북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최선의 호남살풀이춤이 각각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대전에서는 2012년 5월에 김란이 김숙자류 살풀이춤으로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한영숙류 살풀이춤을 이은 이은주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현재 살풀이춤은 각 지역별로 고유한 몸짓과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며, 춤을 추는 개인의 특징에 따라 유파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 기방계열의 살풀이춤이나 무속계열의 살풀이춤, 재인계열의 살풀이춤으로도 나뉘어지지만 모두 한을 풀고 평화와 안녕을 염원하는 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김란은 10대 후반부터 김숙자에게 춤을 배웠다. 김숙자는 1927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다. 김숙자의 조부는 조선후기 유명한 명창인 김석창으로 중고제 명창이며, 춘향가 <신연맞이>의 더늠을 남길 정도로 유명하였다. 김석창은 판소리뿐 아니라 춤에도 능하여 그 아들 김덕순에게 전승했고, 김덕순은 그의 딸 김숙자에게 이 춤을 전해주었다. 김덕순은 화성 재인청과 안성 재인청에서 예인들을 가르친 판소리와 춤의 명인이었다. 김숙자의 외사촌 오빠인 정일동은 경기무악 장단의 일인자였다. 김숙자는 부친 김덕순의 친구인 조진영에게 판소리 다섯 바탕과 잡가를 이수하기도 하였다. 김숙자는 1947년 대전에서 ‘대전국악학원’을 열어 북, 살풀이, 춤, 승무 등을 가르쳤다. 한국무속예술보존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김숙자는 무속을 근원으로 한 도살풀이춤을 완성한 명무이다. 재인의 집안 전통을 잇고 전통예술에 두루 능했던 김숙자는 이후 대전을 떠나 서울로 이주할 때까지 대전의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숙자는 김란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에게 살풀이춤을 전승했다. 김란은 김숙자의 대전국악학원에서 춤을 배우다가 1958년부터 김숙자의 조교로도 활동했다. 김숙자 선생이 안계실 때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그 무렵 70세였던 김숙자의 부친 김덕순에게서도 춤을 배웠다.

김란은 김숙자 선생이 서울로 거처를 옮겨 도살풀이춤을 완성한 뒤 시연회를 할 때 연수생 1기로서 도살풀이춤을 배우기도 했다. 이후 김란무용연구소를 세우고 자신만의 살풀이춤을 완성해나갔다.

김란(金蘭)은 1943년 음력 2월 8일(호적 6월 8일) 전남 광주에서 6남매 중 넷째 딸로 태어났다. 본명은 김금화이다. 김란은 어렸을 때부터 춤의 재능이 남달라 꼭 춤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작정 대전의 무용연구소를 찾아나섰다. 그리고 16살에 우연히 찾아 간 곳이 김숙자의 ‘대전국악학원’이었다. 중요무형

문화재 제97호 경기도 도살풀이 예능보유자였던 춤의 명인 김숙자 선생이 운영하던 곳으로 당시 대전시 중구 중동 10번지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후 1958년부터 대전에서 살게 된 김란은 김숙자 선생에게 춤을 배웠고, 스승이 서울로 올라갔을 때에도 대전에 머물면서 대전 지역의 춤 부흥을 이끌었다. 1962년부터 김란은 자기 이름을 건 ‘김란무용연구소’를 열어 제자를 양성하였다. 어머니가 논밭을 팔아 얻은 돈으로 마련된 공간이었다. 오랜 세월동안 변함없이 춤을 추고 가르친 이 곳은 지금도 대전 선화초등학교 정문 앞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또한 김란은 대전지역에 최초의 시립무용단 설립을 추진하여 1985년 창립 당시부터 1998년까지 약14년간 대전시립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며 헌신해왔다. 대전지역 춤의 큰 스승이 된 김란은 2012년 5월 그 노력을 인정받아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0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현재 그의 ‘김란무용연구소’는 ‘김란살풀이춤보존회’로 간판을 바꾸고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한편 서울 신설동에 분원을 열고 대전, 서울, 부산, 대구 등을 오가며 ‘살풀이춤’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7) 제21호 입춤

입춤은 서서 추는 춤을 뜻한다. 춤을 배우는 이들이 기본으로 익히는 것으로 특별히 정해진 춤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담아낸 표현으로 각 지역의 명무들이 자신만의 춤사위를 발달시키면서 다양한 유파의 입춤이 생겨났다. 현재 입춤은 즉흥무·허튼춤·굿거리춤·수건춤·교방춤·살풀이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김숙자는 부친인 김덕순으로부터 춤과 판소리, 가야금 등을 배웠다. 부친의 친우 조진영 문하에서 춤과 소리를 더욱 다듬었다. 김숙자는 입춤, 승무, 한량무, 설북춤, 도살풀이춤, 진쇠춤, 제석춤, 터벌림춤, 손님굿춤, 군웅춤 등을 전수받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김숙자는 199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안타깝게 1991년 타계하였다.

김숙자에 의해 체계화된 입춤은 근대 극장 공연을 통해 본격적으로 예술화되었다. 김숙자의 춤은 크게 전통춤과 무속춤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무속인이었던 모친과 화성 재인청 출신 부친 김덕순, 그리고 중고제 명창인 김석창이 그녀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경기시나위춤으로 구분되는 민속춤들은 모두 경기도 도당굿에서 파생되어 무대양식화된 것으로 춤사위나 음악적 구성, 기타 복식 등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의 전통적 굿 양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숙자의 민속춤은 경기도 도당굿 화랭이였으며, 화성재인청에서 활동했던 부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입춤, 승무, 한량무, 설북춤 등의 춤사위와 음악적 구성에서 이러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숙자는 김덕순의 춤들을 재창조하여 무대에

솔로서의 무속춤을 탄생시켰다. 1976년 최초로 경기시나위춤이라는 명칭으로 공연을 하였는데, 이 때 ‘돌돌이’ ‘제석춤’ ‘터벌림춤’ ‘손님굿춤’ ‘군웅님춤’ ‘도살풀이 시나위춤’ 등이 공연되었다. 이후 김숙자는 춤들을 더욱 다듬고 1979년 <한국무속예술보존회>를 설립했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매년 정기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제자를 양성했다. 최윤희, 양종승, 이정희, 양길순, 김운선, 김란, 강남기, 김난희, 김영숙, 여현주, 염은아, 유홍란, 이야경, 이양지, 장두이, 최소연, 황정환 등이 그 계보를 이으며 활동하고 있다.

입춤은 춤의 일가를 세운 명무들이 처음 춤을 접하는 초보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춤이다. 입춤은 명무들이 추구하는 예술세계를 근거로 구성하였기에 각기 다른 다양한 양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입춤은 춤을 입문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기본춤이다. 입춤은 장단·의상·춤의 순서가 체계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호흡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감정을 표출한다. 입춤은 장단에 따라 맺고 푸는데, 이때 매 박자마다 악센트가 들어가는 강약과 함께 그 안에서 엇박의 리듬을 만들어 엇박춤을 추는 것이 독특하다.

현재 입춤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최윤희는 1956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15세 때 김숙자의 조카인 유홍란에게 춤을 사사했고, 1974년부터는 김숙자의 문하생으로 입문하여 입춤과 무속춤등을 배웠다. 최윤희의 입춤은 대전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최윤희의 입춤은 충청지역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김숙자류 최윤희 입춤에 나타난 주된 춤사위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팔을 머리에 메는 머릿사위 동작을 할 때, 머리를 감싸는 듯한 동작으로 호흡과 함께 등과 허리의 근육을 사용해서 몸의 중심을 가운데로 오게 하는 춤길의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의 둥근 산이 모습을 나타내듯 태극선의 곡선을 보여준다. 특히 허리를 감으며 여미는 사위는 기본 춤사위의 기본적인 동작으로서 입춤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춤사위라 할 수 있다. 또한 두 팔은 허리에 또는 치마를 양옆에 살며시 쥐고 버선코를 치마 바깥에 살며시 보이며 뒷걸음질로 발동작을 크게 두 번 돌리며 걷고 작게 두 번 제자리에서 다지며 가는 동작, 잔걸음으로 호흡을 들었다 내리며 가는 발동작인 까치걸음, 무릎을 약간 굽혀 걷는 잉어걸이, 완자걸이 등의 발동작이 있다.

입춤의 동작들은 움직임이 각각 분리되지 않고 신체가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들이다. 춤사위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춤사위 동작과 동작간의 구분도 긴밀하게 엮인다. 입춤의 구조는 맺고 풀기, 반복, 변형 등의 형태를 원리로 한다. 안무구성도 동일한 동작의 입춤을 혼자 추면 솔로가 되고 여럿이 추면 군무가 된다. 사람과 장소에 따라 격식이 짜여있지 않고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한 춤으로 사방무대의 공간과 함께 독자적 춤 양식이 되는 것이다. 입춤은 무속춤이나 교방춤을 그 기원으로 한다 할지라도 춤판이 뜰이나 마당, 사랑방, 무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

어지므로 자유롭고 즉흥적이며 다채롭다.

최윤희 입춤의 복색은 흰색 속치마에 진한 옥색 도는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허리띠를 맨다. 저고리에는 홍색 고름과 홍색 소매등을 단다. 기다란 치마를 몸에 똑 끼게 감아입는다. 허리끈은 술띠로 장식한다. 머리에는 쪽을 지고 첩지를 한다. 입춤 장단의 반주는 장구, 북, 팽과리, 징으로 구성되는 사물악기로 연주되며 태평소를 곁들인다. 장구잡이가 반주를 리드한다. 장단은 굿거리와 자진모리이다. 입춤의 전체적인 춤은 맨손으로 추는 맨손춤과 소고를 들고 추는 소고춤으로 이루어진다. 맨손춤을 출 때도 미리 앞바닥에 소고와 소고채를 놓고 춤을 춘다. 맨손춤으로 춤을 추다가 소고와 소고채를 열러 양손으로 집어 일어나면서 춤을 춘다. 자진모리장단으로 바뀌면 보다 역동적으로 춤을 춘다. 김숙자를 통해 전승되는 최윤희의 입춤은 발디딤에서 까치걸음, 잉어걸이, 비정비팔, 손놀림에서 양우선, 몸굴림에서 연풍대 등의 형식에 따라 추어지는 지극히 논리적인 춤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춤 사위는 양사위, 머리양사위, 도는사위, 낙엽사위, 감는사위, 지숫기, 굴리기 등이 있다. 춤의 전체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다.

최윤희는 김숙자로부터 5년여에 걸쳐 춤을 배웠다. 그 실력을 바탕으로 전주대사습놀이 경연에 참여하여 민속무용부분 장원을 하였다. 이후 29세 때는 진주개천한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남 도립국악단의 초대무용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91년부터 대전에 터를 잡은 최윤희는 당시 충남도청 앞에 무용학원을 개원하고 여러 제자들을 지도했다. 2001년에는 한발국악회를 설립하여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현재는 대통령상을 상급으로 하는 권위있는 대회로 치러지고 있다. 대전에서 30여년을 살면서 최윤희는 대전의 국악 발전에 기여하고 재능있는 국악인을 발굴하면서 대전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현재 한발국악회 고문, 미송전통예술보존 이사장, 홍성군립무용단 예술총감독, 최윤희무용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제자를 지도하고 있다.

## 8) 제22호 판소리 춘향가

〈춘향가〉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의 하나로,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이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사랑하다가 헤어진 뒤, 신임 사포의 수청을 거절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어사가 되어 돌아온 이몽룡이 구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춘향가〉는 구전 예술이기 때문에 명창들이 전승해온 소리 이념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보성소리와 정정렬제, 동초제, 김소희제 등이 조금씩 그 사설 내용이 다르고 음악적 성격도 다르다.

동초제 <춘향가>는 정정렬제 춘향가를 토대로 하고 있다. 김연수가 일찍이 <춘향가>를 정정렬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연수는 정정렬에게 배운 소리를 그대로 하지 않고 옛 명창들이 불렀던 여러 좋은 소리를 넣었고, 이동백이나 김창환, 정응민에게 배운 소리도 자기 소리로 만들어 넣었다. 사설에서는 당대 유명했던 <옥중화>의 내용이나 신재효본의 <춘향가> 사설도 수용했다. 이렇게 하다보니 <춘향가> 중 가장 방대한 분량의 <춘향가>가 완성되었고, 그 시간도 장장 8시간에 이르게 되었다. <춘향가>의 내용은 크게 만남, 이별, 수난 그리고 재회로 나뉜다.

동초제 <춘향가> 사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두부분은 춘향의 출생 내력을 이야기하는 '꿈 가운데 어떤 선녀'로 시작한다. 춘향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는 인식은 영웅소설에서 시작하는 관습화된 화소인데, 동초는 춘향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만남 부분에서는 이도령과 춘향이 서로 편지 왕래를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첫날밤을 춘향모 몰래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정렬제와 같은 것이다. 춘향 만나기를 기다리며 해소식을 묻는 장면도 정정렬제를 따랐다. 사랑가의 경우 특히 정정렬제가 진양조, 엇중모리, 중중모리, 중중모리로 이루어졌는데 비해 동초제는 진양조, 자진중모리, 중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중중모리인 6개의 장단으로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별 부분에서는 오리정 이별이 그려진다. 오리정까지 춘향이 따라나가 이별을 하는 것이므로 이별 대목이 매우 확장되어 있다. 춘향이 양반규수로 품위를 지키려면 담장 안에서 이별을 해야 맞지만, 정정렬은 오리정에 술상을 들고 나가 이별을 하는 것으로 그려놓았다. 이것은 춘향의 발랄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표현한 것인데, 이것이 정정렬에서 그린 신식 춘향이의 모습이었다. 동초제는 이러한 부분을 수용하고 있다.

수난 부분에서는 한경석의 '옥중가'를 수용하고 있으며, 임방울이 불렀던 '쑥대머리'도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동초만의 특성이 가미되어 변화를 주었다. '신연맞이'는 다른 제들이 대개 자진모리로 부르지만 변사또의 점잔을 빼는 모습을 그리느라고 진양조로 부른다. 조금 빠른 진양조인 세마치로 부르기도 한다.

재회 부분에서는 남원 읍내의 과부들이 모여드는 부분이 있고, 어사 출도 이후에 이도령이 춘향과 밤을 보내고 정실부인이 되는 내용을 수용했다. 이 부분은 이해조의 소설 <옥중화>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옥중화>는 박기홍의 창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기홍제 <춘향가>의 영향으로도 보인다.

이밖에 동초제는 '기산영수', '산세타령' 등의 옛 더늠을 넣었는데, '천자풀이', '사랑가', '이별가', '신연맞이', '기생점고', '십장가', '옥중가', '과거장', '농부가', '옥중상봉', '어사출도' 같은 주요 대목에서는 대체로 정정렬제를 따랐다. 여기에 '만복사불공', '맹인문복', '과부등장' 등을 첨가하고 있다.

이처럼 동초는 여러 명창들의 더늠과 다양한 사설을 참고하고 이를 자신의 소리로 집대성한 방대한 <춘향가>를 만들었다. 그는 <춘향가>의 전편 녹음을 남기는 동시에 사설집을 만들었고, 이 소리를 그대로 오정숙에게 전승하였다. 그리고 오정숙은 이일주, 조소녀, 민소완, 고향임 등에게 <춘향가>를 전승하였다. 김연수, 오정숙, 고향임으로 전승된 <춘향가>는 동초제로서의 정통을 이어가고 있다.

고향임 명창은 1957년 전북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에서 출생했다. 부친 고성곤과 모친 신노희 사이 4남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이리여고를 졸업하고 19세인 1978년에서 1982년에 극단 민예(현 미추)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하였다. 그러다 1982년경 오정숙 선생을 만나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를 사사받았다. 1986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98년에는 동초제 <흥보가>완창 발표회를 가졌고, 1999년에는 전국 대전광역시 주최 전통 예술진흥회 가무악(歌,舞,樂)경연대회에서 종합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38세인 1995년에 목원대학 한국음악과에 입학하여 이후 학사,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1999년 춘향가 전편(4시간) 완창을 한데 이어서 2000년에는 춘향가 후편(4시간)완창을 하여 그 기량을 인정받았다. 2000년 10월에는 국립극장 초청으로 8시간 연창을 하였다. 이후 공연과 교육에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대전지역의 판소리 전파에 열정을 보였다. 2006년 전주대사습에서 판소리부분 장원(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공히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이후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여 2008년에는 제4회 한빛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에는 8시간 동초제 <춘향가> 완창을 이루어 내었다. 2010년 대전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에는 동초제 <수궁가>를, 2012년에는 동초제 <심청가>를 완창하였다. 이러한 기량을 인정받아 2013년 3월 15일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 22호 춘향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2019년 12월에는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8시간 반 분량의 춘향가 완창을 다시 선보여 기량을 과시했다.

현재 고향임 명창은 ‘고향임판소리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대전, 충청지역의 제자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제자들을 교육하고, 공연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매년 이수자 발표회와 정기 발표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현재 이수자는 26명이며, 전수장학생 5명, 전수자 12명이 고향임예술단 단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고향임 명창의 성음은 수리성으로 통성을 위주로 소리하며, 스승의 소리처럼 상청을 힘있게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녀의 소리는 다섯 바탕 중에 <춘향가>에서 가장 빛나며, 정통 동초제의 소리를 전승하고 있다. 엇부침의 까다로운 장단은 물론 정확한 발성과 성음, 분명하게 구사되는 시김새를 구사하며, 특히 오정숙 명창의 표목을 확연히 잘 전승하고 있다.

## 9) 제23호 대전향제줄풍류

‘줄풍류’란 거문고·가야금·해금 등의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풍류로 방중악(房中樂)을 가리킨다. 옛날 선비들은 사랑방에서 거문고나 삼현육각 등의 반주에 맞추어 시조나 가곡을 불렀는데 이를 줄풍류(絲風流)라고도 하였다.

줄풍류는 두 가지의 편성이 있는데 하나는 거문고·가야금·양금 등 순수한 현악기만으로의 편성이고, 다른 하나는 현악기를 주로 하고 여기에 세피리·대금·단소·해금 등 관악기가 추가되는 편성이다.

향제풍류는 「현악영산회상」을 주요 레퍼토리로 삼고 있는 줄풍류와 삼현육각 편성으로 연주하는 거상악과 대풍류가 있는데, 흔히 향제풍류라 할 때 향제줄풍류를 가리킨다.

풍류는 가곡·시조 등의 성악곡과 구별하여 영산회상·거상악·대풍류 등과 같은 기악곡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양반 및 중인 계층이 향유하던 음악을 통칭하기도 한다.

풍류를 즐기는 이를 풍류객이라 하고 풍류를 벌이는 공간을 풍류방 또는 율방이라 한다. 조선조에는 중인층 풍류객으로 형성된 율회가 지방에서도 조직되었고 근대에 와서 풍류객도 중인층에서 평민층으로 확대되었다.

대전 지역에 남아 있는 풍류의 역사는 유가(儒家)의 기풍에 따라 풍류 문화 또한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풍류는 선비들이 자신의 수신과 풍속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이면서 선비들의 놀이 문화라 할 수 있다. 풍류에서 일반적으로 연주하는 영산회상 외에 과거 선비들은 시조, 가곡, 가사, 송시, 송서 등의 음악을 즐겼다. 대전의 풍류는 거문고와 가야금, 양금 현악기에 단소, 피리, 젓대, 해금, 관악기가 따르며 타악기인 장구를 포함하여 8종의 악기로 연주하고 있다.

대전의 고유한 풍류는 1935년 봄 매사 이정호 선생이 기록한 한자구음 정리본과 한글구음으로 정리된 두 분이 있는데, 여러 악기와 악보 등을 통해 전해 내려온 풍류 문화는 한발정악회에 의해 계승되고 있고, 권용세, 이상덕, 홍인섭, 안승춘, 송석우, 이상귀, 김광일 선생등과 이후 조현영, 이후영, 송경희, 윤치학, 진정식, 이홍복, 이동진, 고정수 등에 의해 문화의 맥을 잇고 있다. 이들의 풍류 음악을 ‘내포향제줄풍류’라고도 불렀으나, 대전지역에서 오랫동안 풍류의 맥을 이어온 바를 중심으로 ‘대전향제줄풍류’로 명명되었다.

풍류의 모임을 보통 율회(律會)라고도 하는데 일제강점기 시대 오창현의 집 사랑에서 율회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해방 직전에는 김창희, 김태문, 이영산, 오창현, 이정호, 전영동, 윤종선, 강명균 등의 율객이 있었다고 한다. 김창희는 양금이나 단소, 이영산은 거문고, 김태문은 거문고나 가야금, 젓대를, 윤종선은 피리나 단소, 강명균은



거문호, 이경호는 가야금, 양금, 단소를 연주하였다고 한다. 해방 직후에는 이태연의 집 사랑에서 모였으나 이영산의 집 사랑에서도 율객들이 연주하였다.

한국전쟁 후로는 송인화의 사랑에서 모이다가 송희철의 사랑에서 율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당시 율객으로는 심남섭, 권용세, 송인화, 이경호, 김덕규, 이태걸, 이종근, 송희철, 오재근, 이상덕, 윤창수, 이농춘, 최준현, 강신철 등이었고, 율회의 명칭은 없었다.

1960년대 초 율회는 대전정악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전 대흥동에 '대전정악원'을 설립하여 홍금식 변호사를 원장으로 추대하고 율객 및 동호인들이 모여 활동하였으며, 신창휴, 심남섭, 권용세 등이 실기지도를 맡았다.

지금과 같은 줄풍류의 역사는 매사 이경호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경호는 1934년 이왕직아악부 교사인 최응모에게 줄풍류를 배웠다. 그가 익힌 음악은 1935년 『금쟁보』에 담겨 남겼는데, 이 악보는 대전향계 줄풍류의 교재와 같은 구실을 하였다. 그는 1911년 충남 연산에서 출생하였는데 호는 매사(梅史)이다. 그는 유성우체국장등을 역임하며 공직에 있었는데, 이 지역 풍류를 허복남 선생에게 먼저 배워 익혔다. 이후 1934년 신병 치료차 계룡산 엄사에 있던 이왕직아악부 교사인 최응모에게 가야금, 양금, 단소를 배웠고, 악보를 정리하여 대전풍류의 맥을 잇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8년 고향인 충남 논산 정동리에 낙향하여 1983년에 작고하였다.

제2세대로 1950-60년대 대전의 줄풍류를 이어가게 한 인물이 바로 서강 권용세이다. 그는 1915년 1월 12일 생으로 대전 중구 정생동에서 출생했다. 청주농고에서 수학한 후 대덕군청 공무원으로 있었다. 1946년부터 조병직, 윤종선에게 시조와 양금을 배운 것을 시작으로 방호준에게 가야금 풍류를 배웠고, 예산 율객인 김명진 선생에게 단소풍류를 배웠고, 성낙준에게 젓대풍류를 배웠으며, 1962년부터 5년간 매사 이경호에게 대금, 단소, 양금을 배웠다. 1961년 대전정악회를 설립하고, 1962년 한국국악협회 충남지부 부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국악교육활동을 계속하여 1976년 충남대학교 국악연구회 창립, 1978년 공주대학교 금슬악회 창립, 1991년 한밭정악회 창립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대전과 충남지역의 풍류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권용세는 주로 단소, 젓대를 연주하였고, 가야금, 양금, 장구를 연주하기도 하였다. 권용세 이후 안승춘, 임윤수, 홍인섭, 이농춘, 송석우, 장덕성, 성낙준, 강태준, 이병준, 김순희, 김광일, 이상귀 등이 대전의 풍류를 이어나갔다.

한편 권용세는 1976년 충남대학교에 국악연구회를 만들어 농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풍류를 전파하고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 외에 시립연정국악원, 대전대학교 동중현, 대전국악관현악단 등에서 활동한 율객들이 대전의 풍류를 이어나갔다. 그런 1980년대부터 풍류모임이 뜸해지면서 고사위기를 겪던 대전풍류는 1980년대 말 동인국악원이 설립되고 풍류인들의 노력으로 1991년 '한밭정악회'를 설립하는데 이른다. 한밭정악회는 1991년 11월 24일 창립하였는데 1992년 11월 7일 대전시민회관 소강당

에서 제1회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해 연주회를 열고 있으며 현재 이상귀 선생이 대전풍류를 지도하고 있다. 이 외에 단소에 이후영, 가야금에 송경희, 거문고에 진정식, 대금에 윤치학, 피리에 이홍복과 박은현, 해금에 김선도, 장구에 권정옥이 지도를 맡고 있다. 1997년 이경호가 남긴 『금쟁보』를 바탕으로 대전향제 줄풍류가 다시 복원되면서 그 후학들에 의해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후학양성과 악보 출간등의 노력을 지속하게 되었다. 한발정악회는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6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대전향제줄풍류를 인정받게 되었고 보유단체인 ‘대전향제줄풍류보존회’로 활약하고 있다.

### 3. 무형문화재 전승의 문제점

#### 1) 지역 환경의 변화와 전승의 어려움

대전시 무형문화재 중 과거와 달라진 생활문화 때문에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승에서 어려움을 겪는 종목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들말두레소리이다. 이 종목은 들말두레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농사의 과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들말두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농사공동체의 연행 과정이 중심에 있어야 하지만, 현재 전승되는 연행과정은 지나치게 획일화된 공연형식으로 짜여져 있다. 두레의 형식상 농사 절기나 농사 관련 여러 행사들이 어우러져 봄부터 가을까지 일사분란한 조직의 협동체가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는 농사와 관계없이 그저 공연을 위한 소리 배우기와 풍장치기가 전수의 대부분이다. 토산이나 우물, 모심기 역시 행사를 위한 도구들로 채워져서 실제 들에서 이루어졌던 생생한 두레풍장으로서의 멋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애초 중심을 이루던 들말 목상동의 주민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전수자들의 확보도 어려운 형편이다. 초대 예능보유자였던 고석근(1929~2015) 옹이 타계하고 현재는 전수조교인 문병주씨와 들말두레소리보존회장 심원생씨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전수교육만으로는 두레의 특성과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 종목은 ‘들말두레소리’이지만 사실 이러한 연행 과정이 바람직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들말두레’ 자체가 잘 운영되어야 하고 그것은 농사를 기반으로 한 생활공동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들말두레소리 전 과장이 제대로 연행되기 위해서는 9월 경 토산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듬해 정월 우물고사를 지내고, 봄이 되어 모내기, 논매기를 지나 음력 칠월칠석날 토산에서 신명나는 놀이판을 벌이며 대미를 장식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와중에 토산다지기, 기세배나 두레소리, 기놀이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이다. 전수관 내 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농업박물관에 여러 도구들이 보존되어 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

면서 두레를 이어간다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존회 건물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농사를 일년 내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일정부분의 토지를 농사를 짓도록 하면서, 보존회 전 회원들이 실제 농사공동체로 힘을 쓸 때 ‘두레’의 의미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

현재 지정된 ‘들말두레소리’는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타는 과정에서 형식화 되어 있어 그 수준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실정이고, 기량의 수준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 전수조교가 과정 전체를 관장하기보다는 소리를 담당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다. 들말두레와 두레소리 연행과정이 함께 복원되고 그 안에서 자생적이고도 발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 기량과 예술성

무형문화재 예능종목은 향토적인 문화를 반영하면서 그 지역예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성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대전시 무형문화재인 경우 대개는 분명한 전승계보와 활동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그 가치가 인정된다 하겠다. 하지만 대전시의 무형문화재의 수준을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기량과 예술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웃다리농악, 가곡, 승무, 판소리, 살풀이춤, 입춤, 대전향채 줄풍류 등은 같은 종목의 다른 지역 보유자나 단체에 비해 기량의 수준이 높지 않고 특히 무대공연으로서의 질적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충청지역의 예술이 대개는 소박하고 담백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기술적인 테크닉이 뛰어나거나 화려한 동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자체로 특색이자 지역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능종목에서 실기나 기량의 우수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대중적 인정과 향유, 전승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체의 경우 단체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개인의 경우 자신의 기량에 대한 자만이나 권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 타시도와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 분야는 판소리 고법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전이 현재 예능종목에서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과도 상통한다. 대전지역에서 오랜 동안 터를 잡고 활동을 한 보유자나 보유단체들이 자신의 기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예술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지역정체성과 보유자의 기반

대전지역은 1930년대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생긴 신흥도시이다. 근대에 본격적

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충남도청이 옮겨오면서 비로소 발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통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유지되었던 전통들은 오랜 가문의 전통을 이어왔던 몇몇 양반가문이나 향교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대전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근현대에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고 근대화 산업화 속에서 전통이 단절된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대전, 충청권에서 실력있는 예술가들의 경우 근거지를 서울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서 대전에서 토박이로 문화를 이어가는 예술인들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대전지역의 토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종목 혹은 보유자는 웃다리농악, 들말두레소리, 판소리고법, 대전향제줄풍류 등이 있지만 그 연원 역시 20세기에 이르러서 정착된 것들이라 역사가 깊지 않다. 이외에 가곡, 승무, 판소리, 판소리고법, 살풀이춤, 입춤 등은 전국적인 전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나, 보유자가 대전에서 기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된 것들이다. 이 중 판소리 고법은 ‘대전북’으로 명명될 만큼 지역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경지에 올라갔는데, 이러한 발전 과정을 모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결국 보유자의 명성과 기량이 올라가면 대전시 무형문화재의 위상도 올라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 외에는 대개 다른 지역에서도 전승되고 있는 종목들로, 대전의 지역적 특성이 드러난다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지역 내 기반과 활동이 주로 반영되어 평가되고 있는 만큼, 보유자들은 대전시 무형문화재로서 창조적 전승을 해야할 필요가 절실하다. 대전시는 전통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더 보장해야 하고, 전통예술인들이 더욱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그랬을 때 높은 수준의 예술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대전시 무형문화재는 총 24개 종목으로 이 중 예능종목에 해당하는 9개 종목을 대상으로 그 전승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대전은 전통문화에 있어서 매우 대접이 소홀하고 대중화가 잘 되지 않는 지역이다. 전통예술의 향유 인구도 매우 빈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의 대표적인 예능종목이 무형문화재로 전승되고 있어서 대전지역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기량과 예술성이 타시도에 비해 낮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지정 절차야 어찌되었건 현재의 보유자들이 더욱 기량을 연마하고 자신만의 예술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시의 지원과 모니터링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대전시의 지역적 정체성과 보유자의 예술성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겠다.

## 〈참고문헌〉

- 강인숙, '입춤', <한국민속예술사전>  
국립민속박물관, 「고수」, 『한국민속문화사전』(판소리), 2013.  
김병곤, 「웃다리농악의 공연학적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김혜정, 「판소리의 전승 활성화와 무형문화재 제도의 간극」, 『남도민속연구』38, 남도민속학회, 2019, 73~93쪽.  
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 『대전광역시 문화재대관』, 경성기획 201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0호 살풀이춤』, 2017.  
대전시, 『대전들말두레소리』, 공주민속극박물관, 2005.  
문화재관리국, 『판소리 유파』, 문화재연구소, 1992.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heritage.go.kr>  
서한범, 「무형문화재 정책-기·예능 전승의 행정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38, 한국민속학회, 2003, 279~320쪽.  
석대권·김세중,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정책의 기본과 그 운영의 역사」, 『한국전통공연예술학』4,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2015, 7~33쪽.  
심우성, 『대전 웃다리 농악』, 대전광역시, 2003.  
오영기, 「판소리 중모리 장단의 반주법에 관한 연구 :박근영 판소리고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경엽, 「무형문화재와 민속 전승의 현실」, 『한국민속학』40, 한국민속학회, 2004, 293~332쪽.  
이후영 편저, 『대전향제 줄풍류-내포향제줄풍류』, 한밭정악회, 2005.  
이희성, 「대전웃다리농악의 연희 요소 연구」, 『연기예술연구』19, 한국연기예술학회, 2020, 19~35쪽.  
임재해,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45, 한국민속학회, 2007, 237~285쪽.  
전지영,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향후 방향성」, 『한국전통공연예술학』5,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2016, 121~140쪽.  
최윤희, 「김숙자류 입춤의 미적 가치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7.  
최혜진, 『고향임창본 춘향가』, 인문과교양, 20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밭정악회, 『대전향제 줄풍류II』, 한밭정악회, 2010.



# 05

## 대전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방안 - 대전무형문화재 1호 웃다리농악 연희요소를 중심으로 -

이희성(단국대학교)





# 대전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방안

— 대전무형문화재 1호 옷다리농악 연희요소를 중심으로 —

이 희 성 (단국대학교)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농악에 대한 연구는 마을농악에 대한 연구로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의 해당지역에 관한 연구로 국한되어 일반적으로 연구되어져왔다. 국내농악분야는 농악은 언제 보아도 힘차고 진취적이며 신명나고 흥겨우며 그 예능자체가 공동체적인 일체감을 주기에 누구나 농악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굿의 발생과 더불어 우리 조상들이 즐기며 전통으로 간직해온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농악은 민족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농악은 민족전통문화 중 하나로써 우리 민족의 정서와 함께 민족의 삶을 엿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이자 음악이다. 현재 농악은 문화에서 음악으로, 음악에서 공연예술로 탈바꿈 하여 우수한 공연예술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농악을 기본으로 많은 창작공연예술이 제작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듯 농악은 전통음악으로서 음악성이 인정되며 창작으로의 변화가 가능한 훌륭한 전통 음악이다(정구환 2013).

이는 농악이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전통 문화 유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농악은 마을 단위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전승되어 왔다. 따라서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 생활환경과 문화적 색채를 비롯한 인문 환경적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지역마다 쇠가락이나 악기편성, 연행, 춤사위, 잡색놀이 등의 독특한 특색을 지니게 된다.

더욱이 유네스코에서는 2014년 11월 대한민국의 농악을 세계무형유산에 등재하여

전 세계에 농악의 역사성과 예술성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농악의 예술성과 역사성을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농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지 못했다.

따라서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을 대표하는 연희농악인 웃다리농악의 발상지가 최근 충남 청양군 까치내 라는 주장(김병곤 2016)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맥을 잇고 있는 대전웃다리농악의 연희적 요소를 연구하여 농악이 지닌 지역의 공연예술적 특징을 발굴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최근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음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대중음악에서 국악이 결합된 콜라보 공연예술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공연예술학적 관점에서 웃다리 농악이 가진 연희적 요소를 조명함으로써 전통예술로서 보전에 머문 대전웃다리농악의 연희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은 충청도를 대표하는 연희농악인 대전웃다리농악의 연희적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농악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희 요소로서 장단 및 판제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파악하고, 연희에서 나타나는 음악적·무용적 요소와 연극적 요소를 확인하여 기예적 요소를 통해 관객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학문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대전웃다리농악의 연희적 전통성과 우수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농악이 공연예술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대중문화로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농악에 관한 연구논문의 대다수는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농악들과 지방 농악의 생성과 전승, 변화양상, 가락, 춤사위, 진법, 소리, 연행양식 등 원형보존을 위한 이론의 정립과 체계화에 집중되어 있다. 농악이 태생적으로 흥과 재미, 공동체 의식고양이라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연희적 속성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농악의 연희적 속성 자체를 상세히 들여다보는 연구는 다소 소홀히 한 면이 없

지 않다.

김원민(2008)은 석사학위논문 ‘남사당풍물의 변화양상 고찰’에서 음악과 춤, 사설, 재담, 놀이, 소리, 재주 등을 풍물 굿의 연희적 요소로 보고, 그 외에 굿판의 재미와 흥을 돋우는 탈굿, 군영놀이굿 등 역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연행양식으로 발전해 왔다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짧게 밝히고 있다.

조한숙(2013)은 박사학위논문 ‘평택농악의 연희학적 연구’에서 평택농악의 연희종목을 판굿의 다양한 종류와 고사소리에서 찾고 그를 세분화 분리하는 연구 성과를 보였다. 대전웃다리농악에 관한 연구는 주로 타 지역 농악과 비교를 통한 전승, 가락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김병곤 2016).

복성수(2007)의 석사학위논문 ‘강릉농악과 대전웃다리농악의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강릉농악과 대전웃다리농악에 대한 지역적 특성과 구성가락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김행덕(2004)의 석사학위논문 ‘웃다리농악의 칠채가락 비교연구’에서 칠채 가락의 시작을 알리는 내는 가락부터 맺는 가락까지 기승전결의 형식과 팽과리 타법과 막음쇠에 따라 칠채 가락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진풀이에 나타나는 내고, 달고, 맺고, 푸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가락을 비교 연구하였다.

전성희(2014)의 석사학위논문 ‘웃다리농악 송순갑제 삼채쇠가락 리듬 변화형 연구’에서는 경기.충청지역의 농악가락 중 대전웃다리농악의 명인인 송순갑의 삼채쇠가락을 연구하였다.

류보라(2013)의 석사학위논문 ‘평택농악과 대전웃다리농악 비교 연구 -판제와 가락을 중심으로’ 연구에서는 평택농악과 대전웃다리농악이 하나의 웃다리농악으로 부터 분화된 두 지역의 풍물을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근원을 가진 음악이 전승과정에서 달라진 판제와 음악적 특징을 규명하였다.

그나마 전문 기예 단 성격을 지닌 대전웃다리농악의 연희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이에 대전웃다리농악의 연희적 요소는 무엇인지, 또 그것이 타 농악과는 어떤 변별력을 가지는지, 그 연희적 요소가 대전웃다리농악의 성격 규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고찰하였다.

## 2. 대전웃다리 농악의 이해

### 1) 연희(演戲) 개념

연演(행할 연)과 희戲(놀이할 희, 희롱할 희)의 한자 조어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사전에는 연희를 “말과 동작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고유어로 몸을 놀려 움직이는 동작을 ‘몸짓’라 한다. 즉 몸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한자로 무舞, 희戲, 연演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말짓’은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을 입으로 나타내는 행위 말하며 재담才談, 낭송朗誦, 주술呪術, 민담民譚이 이에 해당한다(서연호 2009).

이와 같은 몸짓과 말 짓 그리고 악기나 소·대도구를 사용하여 대중을 상대로 재미와 즐거움(희喜, 낙樂, 흥興), 놀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공연행위를 연희라 한다. 그러나 공연행위라는 용어는 현대적인 용어로 이해되는 반면 연희라는 말은 전통사회 민중들의 몸짓 행위 양식들을 일컫는 역사적인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예술사에서 연희라는 개념은 모든 전통적인 공연양식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연희(演戲)는 유희(遊戱)와 연행(演行)의 중간 개념이자 복합 개념이다. 연희는 즐거움, 재미의 ‘놀이’와 남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연행’의 뜻이 어우러져 있는 복합적 의미라 말할 수 있다. 연행이 몸짓으로 나타내는 표현행위로서 동사적인 성격이라면, 연희는 그러한 행위를 일컫는 명사적 성격에 가깝다. 그러므로 연행이라 하면 몸짓 행위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데 머물지만, 연희라고 하면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문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임재해 2013).

지난날 실제 연희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교육 받지 못했던 이유로 한자로든 한글로든 자신들의 행위를 기록할 수 없어 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고유어로 연희의 명칭을 사용했을 것이다. 짓, 놀이, 굿, 마당, 판, 춤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자를 아는 지식인들에 의한 연희에 관한 기록도 상당수 존재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는 한가위놀이를 소개 하는 대목에서 신라의 부녀자들이 노래와 춤과 온갖 짓을 다했다고 하고, 그것을 가무백희(歌舞百戱)라고 하였다.

고려사(高麗史)도 궁이나 거리에서 온갖 연희가 베풀어지는 것을 백희(伯戱), 잡희(雜戱)라고 하고, 매년 왕가와 나라의 액운을 물리치는 행사를 나례희(儺禮戱)라고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비단으로 다락을 높게 장식하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연희를 베푸는 것을 산대희(山臺戱)라 했고, 연희를 잡희, 백희, 잡기라 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는 백여 명의 총명한 소년을 뽑아서 기예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연희 명칭은 고유어와 한자어로 혼합 사용되어 전승되고 있으며 예능, 예술, 기예, 기술, 연예, 연극과 구분 없이 사용되어왔다(서연호 2009).

그런 연유에서인지 연희라는 용어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민속극 학자들 역시 민속극을 중심으로 탈춤과 꼭두각시놀음 같은 연극적 연행 물과 더불어 굿 놀이와 판소리, 축제, 민속놀이 등 각종 민속 연행 물을 아울러 연희라 칭한다. 그러나 연희라는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실제로 연희라는 말이 일컫는 대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희라는 말이 일컫는 가장 기본적인 구체적 대상은 탈춤과 농악(풍물)이다

(임재해 2013).

## 2) 웃다리 농악의 연희적 요소

웃다리 농악의 연희적 요소는 농악의 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사시대의 제천 의식에서 사용되던 제의(祭儀)적인 매 굿은 군악(軍樂)으로, 또 둔전악(屯田樂)으로 변화하였으나 둔전제도의 폐지로 노작형태의洞里농악(洞里農樂)으로 변화를 거치게 되었고 조선 후기에 와서는 기예인(技藝人)들이 집단을 이루어 전국을 유랑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당패(社堂牌), 걸립패(乞粒牌), 중매굿패, 굿중패, 솟대쟁이패 등이 동네에 들어가 풍물(風物)을 치며 보여줄 거리로서 잡희(雜戲) 또한 발전해왔다(조한숙 2013).

일반적으로 농악은 축원형태의 농악에서 시작하여 농경사회의 두레농악, 절 건립과 관련 있는 걸립농악, 주술적인 형태의 농악으로 변천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농악(풍물)은 타악기를 연주하며 춤, 사설, 재담, 소리, 연기, 기예, 굿 등 판을 벌이는 총체적인 종합연희라 할 수 있다(김원민 2008).

풍물패에는 잡색이 등장하고 판 놀이 중 도둑잡이굿과 같은 연극적 놀이, 민요 부르기의 소리 굿, 장단에 손뼉을 맞추어 노는 수벽치기, 풍자와 해학의 탈굿과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 그리고 군영놀이굿 등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혼재 구성되어 있어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신명 판을 만들어 가는 종합예술이다.

연희는 대중을 상대로 행해지는 공연을 지칭하는 데 연희의 범주는 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희 양식은 굿 놀이, 탈놀이, 인형놀이, 판소리, 광대굿놀이, 정재와 교방무, 사찰연희, 대동놀이, 풍물놀이, 유랑광대놀이, 개인 춤, 연주, 가창, 강화(講話), 통과 의례, 무예 등으로 대별된다(서연호 1997).

농악은 어느 경우든 대중을 상대로 행해지는 공연이라는 본래적 특성 때문에 흥과 재미를 위한 구경거리로서 판을 벌여야 한다. 그러기에 진 풀이와 개인놀이, 무동놀이, 벽구 놀이, 채상놀이, 선소리 등의 체기(體技), 묘기에 소리까지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악(樂), 가(歌), 무(舞), 극(劇), 기예(技藝)적인 요소 특징을 갖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를 위해 놀이판, 판제, 판굿,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놀이판(舞臺)

풍물놀이의 놀이판, 즉 무대는 마을 전체의 큰 마당과 길놀이를 포함하는 거리, 난장, 때로는 각기 다른 집집의 마당이 된다. 따라서 농악은 이동 연희하는 데 필요로 하는 유동성 놀이판과 막판의 판 굿에서 노는 지정 장소인 고정된 놀이판 두 가지를 갖고 있다. 농악에 있어 길놀이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로, 온 동

네 사람들의 흥을 돋우며 판 놀이 장소로 모이게 하는 최초의 연희 행위이다.

## (2) 판제(編成)

풍물놀이의 한 틀은 24인 내지 30인 정도이다. 보통 짝수로 맞추는 것이 관습상의 통례였다고 한다. 길놀이에서는 익살광대 노릇을 하는 양반광대가 풍물 짝이의 앞장을 서기는 하지만 이것이 패를 이끈다고 보기는 어렵고, 풍물 짝이 들에 의해서 앞에 내 세워진 채 밀려가고 있는 형상이며 짝이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놀림의 대상으로 재미를 배가시키는 대상이다.

판 놀이에서의 판제는 다음과 같다.

영기(또는 황기)와 두레기가 앞서고 양반광대, 땡각, 회적수(날라리) 등이 따르며 상쇠, 부쇠, 종쇠, 징수님, 부징, 북수님, 부북, 고장수님, 부장고, 종장고, 상벽구님 외 5인 상무동님 외 7인(이 중 3인은 새미놀이 때 어깨 위로 올라가는 어린아이 새미다)으로 이루어진다(심우성 1974).

## (3) 판굿(演戲)

풍물놀이의 판 굿은 대개 28종 내외로 짜여 지고 있다. 이 숫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판국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인사굿, 돌림벽구, 소리판, 겹돌림 벽구, 당산벌림, 벽구놀림(양산치기), 당산벽구놀림(허튼상치기), 당산돌림벽구, 오방진(오방감기), 오방진(오방풀기), 무동놀림, 벽구놀림(쌍줄배기)사통배기, 가새(가위)벌림, 좌우치기, 네줄배기, 마당일채(찍찍이굿), 밀치기벽구, 상쇠놀이, 징놀이, 북놀이, 장고놀이, 따벽구, 시나위, 무동서기(새미받기도 겸함), 채상놀이, 마당걸이 등순서이다(심우성 1974).

## (4) 버나(대접 돌리기)

버나는 30분 정도 앵두나무 막대기, 담뱃대, 자새칼 등으로 버나, 대야, 대접, 사발 등을 도리는 놀이이다. 반주악기는 땡과리, 징, 북, 날라리 등이며 반주음악으로는 덩덕궁이, 자진가락, 가창으로는 매화타령이나 산염불 등으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연희형태로는 던질 사위, 때릴 사위, 자새버나, 다리사위, 칼 버나, 무지개사위, 정봉산성, 바늘버나, 단발령 넘는 사위, 도깨비 대동강 건너기, 삼봉, 늦대야 돌리기 등이 전해진다(심우성 1974).

#### (5) 살판(땅재주)

땅재주는 지예(地藝), 장기(場技)라고도 하며 “잘하면 살판이요, 못 하면 죽을 판”이란 뜻에서 살판이라 했다고 전해진다.

살판의 무대는 장정 다섯 발 내외의 장대를 세우고, 꼭대기 부문 오리목을 지른 곳에서 가슴넓이의 두 가닥 평행선을 그리는 쌍줄을 양편으로 내려 땅바닥에서 말뚝으로 고정 시킨다. 솟대목 주위의 두 칸 명석 6넝 가량이 놀이판이다. 기예(技藝)의 종류는 12가지인데 새로운 것이 발견 되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 곤두, 뒷 곤두, 번개곤두, 자반뒤지기, 팔걸음, 외팔걸음, 외팔곤두, 앞은뱅이팔걸음, 쭈새미트리, 앞은뱅이 모발 되기, 수어 뽐, 살판 등이다.

땅재주는 살판 쇠(땅재주 쑤)와 매호씨(어릿광대)가 재담(臺詞)을 주고받으며 쥘(樂士)의 장단에 맞춰 정해진 순서대로 곤두질 쳐나가는 것이다(심우성 1974).

#### (6) 어름(줄타기)

어름놀이는 높이 3미터, 길이 5~6미터의 녹밭줄 밑에서 ‘줄고사’를 올린다. 악기는 썰과리, 징, 북, 장고, 날라리가 동원되며 주과포(酒果脯)를 올리고 어름산이가 고사를 올리며 시작된다. 어름산이와 매호씨가 재담을 주고받으며 어름산이가 줄에 올라 줄타기 재주를 보인다. 17 가지 줄타기 놀이가 있고 1시간 30분 정도가 진행된다. 앞으로 가기, 장단줄, 거미줄 늘이기, 뒤로 훑기, 콩심기, 화장사위, 참봉댁 만아들, 억석애미 화장사위, 처녀 총각, 외호모 거리, 허궁쥘이, 가새트림, 외허궁 쥘이, 쌍허궁 쥘이, 양반 병신걸음, 양반 밤나무 지키기, 녹두 장군 행차 등이다(심우성 1974).

#### (7) 덧뵈기

덧뵈기에는 사물(썰과리, 징, 북, 장고)과 날라리가 동원 되고 반주음악으로는 염불, 타령, 굿거리, 덩덕궁이, 칠채 가락 등이다. 춤사위로는 나비춤, 닭이똥 사위, 피조리춤 등으로 중부지방 춤사위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탈은 나무탈과 바가지 위에 종이 찢것을 붙이고 아교단청으로 탈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탈의 종류는 샌님, 노친네, 취발이, 말뚝이, 먹중, 옴중, 피조리 두 개, 꺾쇠, 장쇠 등이 있다.

놀이무대는 4평 정도의 명석을 갈아 놓은 원형무대의 형태를 취하며 모두 4마당(1마당: 마당삿이, 2마당: 옴탈 잡이, 3마당: 샌님 잡이, 4마당: 먹중 잡이)으로 구성된 덧뵈기는 1시간 30분 정도 시연된다(심우성 1974).

#### (8) 덜미(꼭두각시놀음)

‘덜미’란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논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 꼭두각시놀

음은 박첨지놀이, 흥동지놀이, 꼭두 박첨지놀이 등으로 부른다. 인현극 조종자는 덜미 잡이, 꼭두 잡이라 부른다.

덜미의 등장인물은 (인물, 동물) 40여 개에 이른다. 인형은 박첨지, 꼭두각시, 흥동지, 덜머리집, 피조리, 상좌, 흥백가, 표생원, 묵대사, 영노, 귀팔이, 평안감사, 작은박첨지, 박첨지손자, 상주, 동방석이, 잡탈, 사령, 상도꾼 등이고 동물 인형으로는 이시미, 매, 청노새, 꿩 등이 있고 소대도구로는 절, 부처, 상여, 명정, 만사, 영기, 요령, 부채 등이 있다.

덜미 놀이판을 연희자들은 포장(布帳)이라 부르는 데 3미터 안팎의 평방에 네 기둥을 세우고, 무대 면이 되는 쪽만 1미터 20센티 정도의 높이 위에 인형이 나와서 노는 가로 2미터 50센티 세로 70센티의 무대만 남겨 놓고 사방을 모두 포장으로 둘러친 공중무대이다. 이 무대면이 되는 공간을 통하여 주조종자인 대 잡이가 중심이 되어 양 옆에 대잡이손(補)이 앉아 인형의 조종과 등퇴장을 돕는다. 무대면 밖 약간 비스듬한 자리에 받는 소리꾼(산받이)와 잡이(樂土)들이 관중석과 분리되지 않은 채 무대 면을 보고 앉아 놀이를 진행한다. 덜미에는 꿩과리, 징, 북, 장고, 날라리가 동원되며 반주 음악으로는 염불, 타령, 굿거리 등이, 가창으로는 시조도 흥에 따라 하기도 한다(심우성 1974).

### Ⅲ. 대전웃다리농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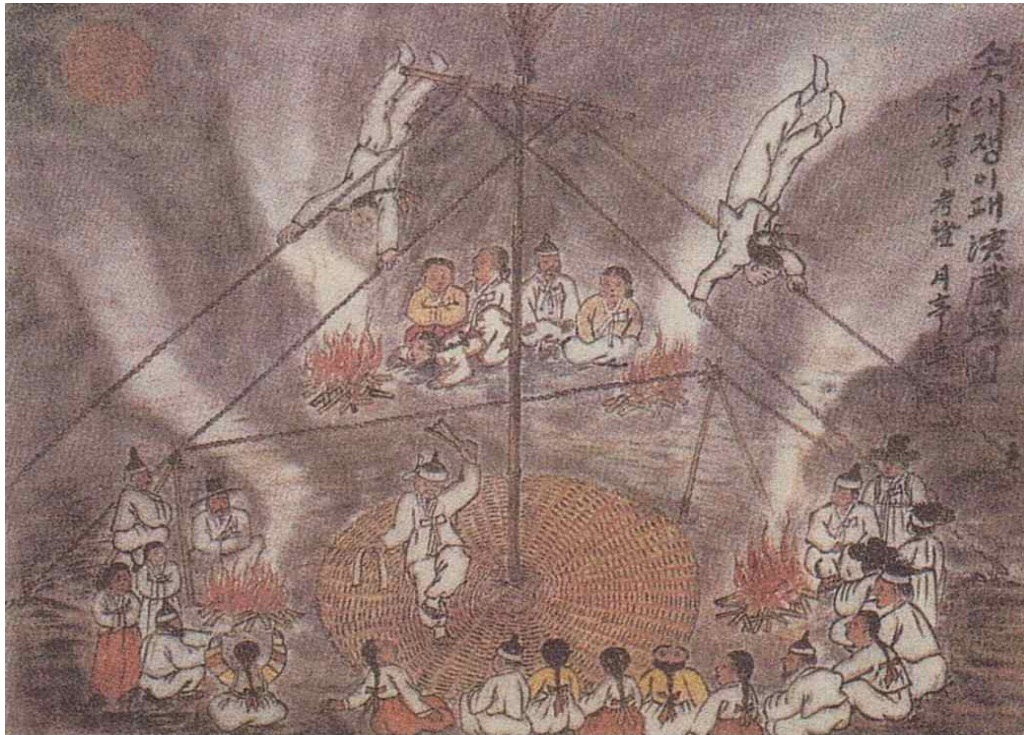
#### 1. 대전웃다리농악의 유래와 전승

대전웃다리농악 형성의 시작점은 중앙농악회의 설립이라 할 수 있다. 송순갑은 회덕에서 생활하며 광복 이후 50년대 말기까지는 신탄진·대전농악대에 관계하면서 지역 전승문화의 복원·창안에 힘썼으며, 충북 증원의 세계사 절걸립(1955~1971)을 계기로 당시 6, 7인(사물 각각 1인씩, 화주 1인, 소고 1인, 기수 1인) 내외로 모여 다니던 걸립패가 화주(총무격) 일을 보던 김영소를 초대 회장으로 중앙농악회를 1960년에 창단하였다(김병곤 2015).

중앙농악회의 창립 이래 1970년대까지는 주로 각종 걸립 활동과 지역문화행사의 공연 팀에 협조 출연하는 일이 주를 이루었다면, 1980년대에는 대외적인 활동에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으며 특히 웃다리농악이 지역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전수하게 되었다. 점차 걸립농악의 형태에서 전문연희농악 형태로 변모하였으며, 송순갑이 체득한



농악의 예능을 더욱 발전·승화시켜 윷다리농악의 예술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무형문화재 지정이후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윷다리농악의 전승·전파를 하고 있다(김병곤 2015).



〈그림 1〉 송순갑의 쌍줄타기 연희도

## 2. 대전윷다리농악의 탐색

### 1) 대전윷다리농악의 연희자 구성

대전윷다리농악의 연희자는 크게 기수, 앞치배, 뒷치배로 구성된다. ‘기수’란 기를 들고 공연하는 연희자를 말하며, 농기수, 영기수, 용기수, 오방기수 등이 있다. ‘앞치배’란 악기를 가지고 공연하는 연희자를 말하며 쇠 잭이, 징 잭이, 장구 잭이, 북 잭이, 소고 잭이, 쇠 납수, 긴 나발수, 열 두발 상모 잭이 등이 있다. 뒷치배는 잡색이라고도 하는데, 특정 역할의 분장을 하고 그 역할을 흉내 내며 공연하는 연희자를 말하며 새미, 꽃 나부, 무동, 양반, 각시, 대포수, 조리중 등이 있다(이희성 2015).

대전윷다리농악의 기본 편성은 사물에 각각 2인씩 8인 그리고 소고 8인과 무동의 8인으로 24인이 기본이지만 이러한 편성은 공연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되기

도 한다.

## 2) 대전웃다리농악의 연희양상

농악의 연희적 요소를 구성하는 음악, 무용, 연극, 기예의 관점에서 대전웃다리농악의 연희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민속학자 심우성은 송순갑의 쇠가락은 고도한 기능과 신명이 깃들어 있다는 다른 남사당 단원들의 평을 받고 있다(심우성 2003). 송순갑은 대전에 정착하면서 중부권 웃다리농악의 보급 발전을 위해 1960년에 중앙농악회를 창단하여 대전웃다리농악의 독특한 판제와 장단들을 정립시켰다.

대전웃다리농악의 판제는 ‘18 판제’라 하여 인사굿, 돌림벽구, 당산별림, 칠채오방진, 새미놀이, 절구대놀이, 십자걸이, 사통백이, 원좌우치기, 네줄좌우치기, 찌찌이, 풍년굿(영산다드래기), 고사리격기, 도둑잡이굿, 소고판굿놀이, 개인놀이, 명석말이, 인사굿, 퇴장굿 순으로 총 18 종류의 판제가 있다. 타 농악에서도 판제의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하나 대전웃다리농악은 1번 인사굿부터 18번 퇴장굿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 대전웃다리농악 18판제 중 인사굿과 퇴장굿

## 3) 대전웃다리농악의 연희적 요소

### (1) 음악적 요소

풍물 굿은 음악·무용·연극·기예 적 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예술 형태라 할 수 있지만 특히 음악적 요소, 그중에서도 기악 적 요소가 주가 되는 전통 공연양식이다. 팽과리, 징, 장구, 북 등 타악을 중심으로 국악의 리듬적 요소에 해당하는 장단을 합주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전웃다리농악의 음악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사당패와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래 남사당패에서 활동했던 연주자들이 경기·충청 지방 등지에 정착하면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대전지역은 남사당패에서 활동했던 송순갑 선생이 정착하여 대전농악에는 남사당패의 가락, 판제, 복색 등이 거의 원형 그대로 전승되었다. 남사당 풍물의 장단 구성은 옷다리 권역의 장단 형태와 대동소이하다(이희성 2015).

대전옷다리농악은 칠채의 기경결해와 칠채 속에 삼채를 붙여서 연결하는 것, 그리고 풍년굿(굿거리춤)에 쓰이는 장단이 4장단으로 되어 있고, 내고, 달고, 맺고, 푸는 음악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과 삼채장단이 기경결해의 구조로 반복 연주되고 있으며, 이 장단들은 상모짓과 일치가 되고 있는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표적으로 삼분박 패턴의 장단으로는 굿거리, 텅덕궁이가 주로 연주되며 이분박은 자른가락(휘모리)이 주되게 연주된다.

특히 다른 지역의 농악에 비해 대전농악의 팽과리 가락은 잔가락과 기교가 화려하고 다양하며 막음새 또한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쇧가락이 분명하며 짝쇠놀이가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갱 | 개 | 갱 | 갱 | 개 | 갱 | 갱 | 개 | 갱 | 개 | 갱 | 개 | 갱 | 개 | 갱 | 개 | 갱 | 개 | 갱 |
| 장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갱 | 그 | 라 | 갱 | 갱 | 그 | 라 | 갱 | 갱 | 그 | 라 | 갱 | 갱 | 그 | 라 | 갱 | 갱 | 그 | 라 |
| 북  | ① | ② | ○ | ① | ② | ○ | ① | ② | ○ | ① | ② | ○ | ① | ② | ○ | ① | ② | ○ | ① |
|    | 텅 | 터 | 궁 | 텅 | 터 | 궁 | 텅 | 터 | 궁 | 텅 | 터 | 궁 | 텅 | 터 | 궁 | 텅 | 터 | 궁 | 텅 |
| 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둥 | 두 | 둥 | 둥 | 두 | 둥 | 둥 | 두 | 둥 | 둥 | 두 | 둥 | 둥 | 두 | 둥 | 둥 | 두 | 둥 | 둥 |
|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 | 징 | 징 | 징 | 징 | 징 | 징 | 징 | 징 | 징 | 징 | 징 | 징 | 징 | 징 | 징 | 징 | 징 | 징 |

〈그림 3〉 정간 구음보 대전옷다리농악 칠채

## (2) 무용적 요소

대전옷다리농악의 무용적 요소들은 기수·앞치배·뒷치배들이 공연 중에 벌이는 상모놀음과 춤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상모놀음은 앞치배들이 상모를 쓰고 이를 가지고 추는 무용적 동작들을 말하며, 다양한 진법을 구사할 때에도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듯이 움직이며 특히 비교적 악기연주의 부담이 적은 소고쟁이 들은 더욱 다양한 무용적 동작들을 보인다. 기수는 기를 가지고 간단한 동작의 춤을 추고, 뒷치배(잡색)들

은 각각의 역할의 성격에 맞는 동작으로 즉흥적인 춤을 춘다. 이러한 지배들의 춤사위는 관객의 흥을 돋우어 함께 춤을 추며 노는 형태의 대동놀이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판 굿의 연행 과정에서 특정 순서에서 무용적 요소가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사진 1〉 솟음벽구

### (3) 연극적 요소

대전웃다리농악에서 버나와 살판의 재담은 판제의 개인놀이 순서에서 주로 공연한다. 살판과 버나는 공연 중간에 재담을 이어가며 관객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재담은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재미있는 말들로 이루어져있어 공연에 극적인 재미를 더하며 기예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재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며 단어와 구절의 반복을 사용한다.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관객들과의 친숙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담에 자주 쓰였다(이기원 2006). 최근에는 공연의 장소와 환경에 따라 재담의 연행방식을 다양하게 하기도 한다. 전통의 재담방식을 계승하기도 하나, 요즘 사회에 통용되는 유머를 가미하여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는 재담을 보이기도 한다.

잡색놀음이란 판굿의 공연 중에 잡색들이 하는 연극적 행동들을 말한다. 잡색들은 꽃 나부, 무동, 양반, 각시, 포수, 조리 등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이때 잡색들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연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잡색들은 대사를 하지는 않지만, 일련의 몸짓과 행동에서 각 역할의 성격을 즉흥적으로 표현한다.

잡색들은 이러한 연극적 행동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인물에 대한 풍자적인 시각으로 위선과 부조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이들의 즉흥적인 재치로 관객을 놀이판으로 끌어들이어 함께 공연을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김병곤 2015). 버나와 살판 그리고 잡색들의 재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시대를 풍자한다든지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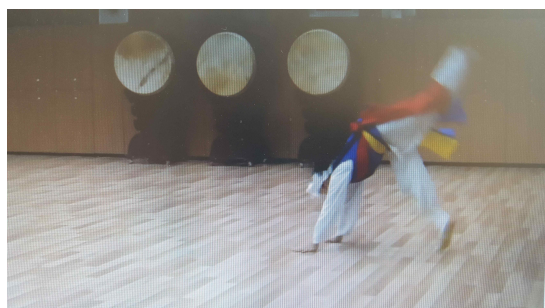
객들과의 친숙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담으로 연극적 요소들을 느끼게 한다.

#### (4) 기예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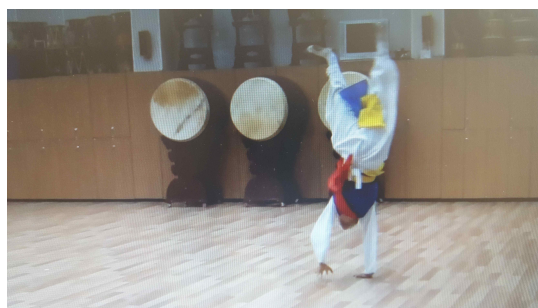
대전웃다리농악 에서는 소고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치배 중 유일하게 채상상모를 쓰고 있어 다양한 상모놀음을 선보일 수 있고, 판 곳에서 많은 순서가 소고잼이의 다양한 놀이를 보여주기 위해 구성된다. 소고 판굿놀이와 열두발 그리고 무동꽃 받기 등에서도 기예적인 부분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열두발 상모는 12발에 달하는 긴 꼬리의 상모를 쓰고 다양한 상모놀이를 보여주는 기예적 놀이이다. 개인 장구놀이가 끝나고 열 두발 상모 잼이가 등장하여 열두발 상모를 돌리기 위해 긴 채상 꼬리를 앞으로 던진 다음 고개를 흔들어 채상 꼬리를 들어올린다.

살판(땅재주)는 살판쇠(땅재주꾼)와 매호씨(어릿광대)가 재담을 주고받으며 잼이(악사)의 장단에 맞춰 정해진 순서대로 곤두질을 쳐 나가는 것이다.

살판의 재주에는, 앞으로 걸어가다가 손 집고 한번 공중회전하고 서는 앞 곤두, 뒷 걸음으로 가다가 손 짚고 뒤로 한 번 회전 하고 서는 뒷 곤두, 앞으로 가다가 손 짚지 않고 공중회전하고 서는 번개곤두, 양 발과 양 손만을 땅에 짚고 몸 전체를 틀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뒤집어 가는 자반뒤지기, 두 팔을 짚고 거꾸로 서서 걸어나가는 팔 걸음, 외팔로 거꾸로 서서 뛰어 앞으로 가는 외팔걸음, 앞으로 가다가 외팔 짚고 바로 서는 외팔곤두, 양발을 오므려 책상다리하고 거꾸로 서서 걸어나가는 앞은뱅이팔걸음, 앞 곤두와 같은 것을 큰 원을 둘 네 번 계속하는 쭈세미 트리, 양손은 옆드려 땅을 짚고 발은 책상다리로 오므려 붙이고는 옆에 말이 있다는 가정 하에 양 무릎으로 퍼 넣고 오른쪽 무릎으로 꺾꺾 누르는 흥내를 내는 앞은뱅이 모말 되기, 하늘을 본 채 양 팔은 뒤로 땅을 짚고 발은 땅을 디딘 채 손을 떼며 몸을 틀어 일어서서는 다시 양 손만 짚고 팔걸음으로 섰다가 양발이 넘어가 처음 자세대로 된 후, 다시 몸을 틀어 양 발을 하늘로 올려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가는 송어뽕, 꺾충꺾충 위로 뛰다가 몸을 틀어 공중회전하고 서는 살판 등이 있다.



〈사진 2〉 살판 1 (앞곤두)



〈사진 3〉 살판 2 (앞곤두)

## IV. 결론

대전웃다리농악의 연희적 요소를 연구한 결과 연희자의 구성은 크게 기수, 앞치배, 뒷치배로 구성된다. ‘기수’란 기를 들고 공연하는 연희자를 말하며, 농기수, 영기수, 용기수, 오방기수 등이 있다. ‘앞치배’란 악기를 가지고 공연하는 연희자를 말하며 쇠젹이, 징젹이, 장구젹이, 북젹이, 소고젹이, 쇠납수, 긴 나발수, 열두발 상모젹이 등이 있다.

뒷치배는 잡색이라고도 하는데, 특정 역할의 분장을 하고 그 역할을 흉내 내며 공연하는 연희자를 말하며 새미, 꽃나부, 무동, 양반, 각시, 대포수, 조리중 등이 있으며, 대전웃다리농악의 기본 편성은 사물에 각각 2인씩 8인 그리고 소고 8인과 무동의 8인으로 24인이 기본이지만 이러한 편성은 공연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대전웃다리농악의 판제는 ‘18 판제’라 하여 인사굿, 돌림벽구, 당산벌림, 칠채오방진, 새미놀이, 절구대놀이, 십자걸이, 사통백이, 좌우치기, 짹짹이, 풍년굿(영산다드래기), 고사리격기, 도둑잡이굿, 소고판굿놀이, 개인놀이, 명석말이, 인사굿, 퇴장 순으로 총 18 종류의 판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희의 요소 중 음악적 요소로는 칠채의 기경결해와 칠채 속에 삼채를 붙여서 연결하는 것, 그리고 풍년굿(굿거리춤)에 쓰이는 장단이 4장단으로 되어 있고, 기승결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과 삼채장단이 기경결해의 구조로 반복 연주되고 있으며, 이 장단들은 상모짓과 일치가 되고 있는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쇠젹가락이 분명하며 짹짹놀이가 발달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대전웃다리농악의 무용적 요소들은 기수·앞치배·뒷치배들이 공연 중에 벌이는 상모놀음과 춤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상모놀음은 앞치배들이 상모를 쓰고 이를 가지고 추는 무용적 동작들을 말하며, 기수는 기를 가지고 간단한 동작의 춤을 추고, 뒷치배(잡색)들은 각각의 역할의 요소에 맞는 동작으로 즉흥적인 춤을 춘다. 또한 판굿의 연행 과정에서 특정 순서에서 무용적 요소가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다. 버나와 살판 그리고 잡색들의 재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시대를 풍자한다던지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관객들과의 친숙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담으로 연극적 요소들을 느끼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예적인 면에서도 버나와 살판은 웃다리판제의 개인놀이 순서에서 주로 공연한다. 살판과 버나는 공연 중간에 재담을 이어가며 관객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재담은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재미있는 말들로 이루어져있어 공연에 극적인 재미를 더하며 기예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고 판굿놀이와 열두발 그리고 무동꽃받기 등에서도 기예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풍물’에 ‘놀이’를

붙여 풍물놀이라고도 부르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농악은 놀이적 요소가 다분히 가미되어 있는 연희 형태이다.

따라서 대전웃다리농악은 연희농악으로서 연희적 요소를 잘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까지도 전통공연으로 대중성을 확보하고 많은 관객에게 사랑을 받은 예술 장르로 유지될 수 있는 것 또한 대전웃다리농악의 연희적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공연예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연은 두 개 이상의 장르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근대적 방식으로 장르를 분류하는 것은 관객의 니즈에 크게 벗어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제약이 많은 현장 실연예술에서 이를 초월하게 하는 기술의 도입은 매력적이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공연은 더 이상 화제가 되지 않는다. 멀티미디어가 전통공연의 연희적 관점에서 볼 때 작품의 완성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질적인 수준에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장르적으로 피지컬 씨어터라고 부르는 공연이 늘어나고 있다. 연극적 요소에서 몸은 언제나 중요하다. 기술발전은 연희자의 몸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질적인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아크로바틱은 연희적 측면에서 연희자 가 보여줄 수 있는 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최근 공연에 도입되는 서커스에 가까운 장면연출까지 급격히 나아간다. 장르적 경향성을 보이는 년별 퍼포먼스에서도 아크로바틱은 기본 장치이기도 하다. 웃다리농악의 소고 판굿놀이와 열두발 그리고 무동꽃받기는 이러한 연희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 굿판에 재미와 해학을 더한 연희농악 대전웃다리농악은 공연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전웃다리농악의 연희적 요소인 음악, 무용, 연극, 기예의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대전웃다리농악이 지닌 공연예술로서의 가치와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대전웃다리농악은 민족공연학으로 문화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행위 예술로서 연희적 성격의 장단과 판제로 구성된 고유 전통공연문화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웃다리농악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로서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현대대중예술의 관점에서 연희적 요소가 왜곡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전웃다리농악의 연희 자산으로서 가치를 규명함으로써 지역 전통에 기반을 둔 문화적 전통의 계승과 다양한 전통연희 콘텐츠의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전통연희의 충실한 보존·전승과 전통연희를 활용한 새로운 공연예술의 창작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 서커스, 무용 등 여러 분야의 창작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시대별 대전웃다리농악의 연희적 요소를 분류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연희 형태를 분석한다면 연희농악으로서 대전웃다리농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서연호(1997). 한국전승연희의 원리와 방법, 집문당.  
심우성(1974). 남사당패연구, 동문선.  
심우성(2003). 대전웃다리농악, 대전광역시.  
한국예술종합학교(1998). 한국전통연희의 이해와 실제, 서울: 삼광문화.

### 2. 논문

- 김병곤(2015). 웃다리농악의 공연학적 연구 : 대전웃다리농악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원민(2008). 남사당 풍물의 변화 양상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석사학위논문.  
김행덕(2004). 웃다리농악의 칠채가락 비교연구 : 대전, 안성, 평택, 팽과리 가락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보라(2013). 평택농악과 대전 웃다리 농악 비교 연구-판제와 가락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복성수(2007). 강릉농악과 대전웃다리농악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연호(2009). 한국연희연구의 현실과 미래, 韓國史市民講座, 45, p.258.  
석대권(2011). 충청농악의 전승과 미의식, 한국전통음악학, 12, pp.249-259.  
이기원(2006). 한국 버나의 역사와 연행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호승(2016). 남사당패 어름사니 조송자의 연희세계, 민속학연구, 38, p.133.  
이희성(2015). 충청웃다리농악 학술세미나집, 충청문화관광산업연구소.  
임재해(2013). 한국 전통연희의 유형과 축제 자산으로서 새 지평, 한국전통공연예술학 2, pp. 85-135.  
전성희(2014). 웃다리농악 송순갑제 삼채 쇠가락 리듬 변화형 연구, 중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구환(2013). 광명농악과 평택농악의 팽과리 장단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한숙(2013). 평택농악의 연희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